

11월 선거 양당후보 결정... MD 예비선거 "이번은 없었다"

MD 연방상원, 호건 vs 올소브룩스 대결

메릴랜드 연방상원의원 선거가 민주당 흑인 여성 후보와 공화당 백인 남성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다.

지난 14일 치뤄진 메릴랜드 예비경선에서 안젤라 올소브룩스(민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는 24만3637표를 얻어 54% 득표율로 얻어 42%에 그친 데이빗 트론(민주) 연방하원의원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승리했다.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한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 합계는 4%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애초부터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올소브룩스는 크리스텐 홀렌 연방상원의원 등 거의 모든 메릴랜드 연방정치인과 웨스 무어 주지사 등 주요 선출직 공무원들과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재벌기업 오너 출신인 트론 의원이 사제 6300만달러를 선거캠페인에 투입하며 예비경선에서는 보기 드물게 네가티브 정치광고로 전면전을 펼쳐면서 상당히 고전했다.

AP는개표 시작 30분 만에 호건의 승리를 공표했다. 호건은 61.9%를 득표해 메릴랜드의 정치 풍운아 로빈 피커 후



래리 호건

안젤라 올소브룩스

보(30.1%)를 압도했다.

법정 변호사로 일하는 피커 후보는 연방상하원의원은 물론 주지사, 군수, 카운티 의회 의원 선거까지 거의 모든 선거에 공화당 당적으로 출마해 왔으나 이번 고배를 마시고 있어, 메릴랜드의 정치 풍운아로 불린다.

트론이 사퇴한 메릴랜드 제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는 에이프릴 델라니 후보가 39.1%를 득표해 26.7%에 그친 조 보겔 후보를 따돌렸다. 델라니 후보는 같은 지역에서 연방하원의원을 지낸 존 델라니의 부인이다.

델라니 전 의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지역 연방하원의원을 지냈으

나 2020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불출마했으며 그 자리를 트론 의원이 이어받았다가 다시 델라니의 부인이 넘겨받게 됐다.

제6선거구 공화당 예비경선에서는 닐 패럿 후보가 47.1%를 얻어 후보를 확정지었다. 11선을 지낸 더치 루퍼스버그 연방하원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된 제2선거구는 존 울제웨스키 볼티모어 카운티 군수(민주)와 킴벌리 크라이시크 후보(공화)가 본선에서 맞붙는다.

제3선거구(글렌 아이베리 의원)와 5선거구(스테니 호이어 의원), 7선거구(크웨이시 음푸메 의원), 8선거구(제이미 라스킨 의원)는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승리했다. 현재 84세인 호이어 의원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23선을 달성하게 된다. 그는 1966년 주상원의원 선거에 당선돼 한번도 낙선하지 않고 정치역정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메릴랜드 상원의회 의장과 연방하원 다수당 원내총무와 원내대표를 역임한 거물이다.

양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80%가 넘는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 관계기사 3편 김욱재 기자

마크 장 후보, 5.3% 득표그쳐 '낙선'

MD제3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사라 엘프러스 후보 당선



마크장

사라엘프러스

한인 마크 장 후보가 출마해 관심을 모은 메릴랜드 제3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사라 엘프러스 후보가 '1.6의회사태 영웅' 해리 던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며 승리했다.

엘프러스 후보는(70% 개표현재) 총 2만1,028표(35.4%)를 득표해 1만 4,748표(24.8%)를 얻은 던 후보를 무난히 꺾었다. 3위는 중국계 후보 클레런스 램 후보(6740표, 11.4%), 4위는 테리 힐 후보(3990표, 6.7%)가 기록했다. 마크 장 후보는 총 3130표, 5.3%의 지지율을 얻었다. 각종 여론 조사와 정치 분석가들의 예상대로

5위에 머문 것이다. 그러나 총 득표수 3,130표는 "아쉬운 결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한인들이 밀집한 하워드 카운티 등이 포함된 3선거구에서 나타난 이같은 결과는, 수개월 동안 운영했다는 '한인선거 운동본부'가 제대로 활동 및 기능 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점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박세용 기자

고물가 살짝 꺾였다... 금리인하 기대 커지나

근원CPI 3.6%, 전월보다 낮게 올라 고용·임금 둔화, 주택은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다소 둔화했다. 그간 정체됐던 인플레이션 완화가 재개됐다는 신호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불을 지필지 주목된다.

15일 노동통계국은 4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3.4%)와 부합하는 수준이

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시장 예상치(0.4%)를 소폭 하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6% 올라 예상치(3.6%)와 같았고 전월(3.8%) 상승률보다 낮았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금리 인하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제시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연율 2%)보다 물가가 높은 수

준이기 때문이다. 또 CPI는 1월(3.1·전년 대비)과 2월(3.2%), 3월(3.5%)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3%대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끈적한' 모습이다. 메간 호너넨 버넨스 캐피털 어드바이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전날 CNBC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2편 '금리인하 기대' 로 이어집니다



바이든·트럼프, 6월27일 첫 토론 오는 11월 대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내달 말에 '맞장 TV토론'에 나선다. 바이든은 6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일정에 동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두 차례 토론에서 내게 패배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안대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바보 같은 조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의사 Dr.김중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폐입
순금 여기 불만지않고
보석 새금,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유명 델리 DC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담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익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VA 현둔
식당 자리 6,408 SF, 엘바나 메릴랜드	도장	그로서리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풀스쳐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풀스쳐처, 버지니아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싱턴 메릴랜드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애쉬번	상가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사무실	단독 건물 백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애쉬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시,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주택
		방2, 화장, 차고, 메트로근처 웨그맨영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랜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k@dwelld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액주주

미, 중국 전기차 우회수출도 막는다... 멕시코산에 관세 예고

멕시코 작년 미국의 1위 수입국 돼 USTR 대표 "대응할 모든 수단 검토"

미국 정부가 14일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폭탄'을 발표할 데 이어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대중 관세 인상)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업계와 논의 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같은 유형의 생산에 대해 우리가 커지고 있으며 USTR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 공언했다. 그는 "중국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자체 규칙 속에서 게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전임 대통령은 미국 수출 증대와 제조업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실패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관세를 결합하고 있다.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재선하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미국 가족들의 비용이 매년 평균 1500달러씩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식 무역 전쟁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중국 패러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을 의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를 놓고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60%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다른 자동차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다른 많은 품목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관세 인상의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은 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멕시코에서 공장을 지었다"며 "대통령이 되면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전기차를 파는 우회 통로로 멕시코를 이용해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타이 대표의 '멕시코산 중국 전기차' 조치 예고는 트럼프 진영의 공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적인 '중국 패러기'는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 차단 이슈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내에선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지 못하면 중국산 저가 과잉 생산품이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활로를 찾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그간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대미 수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이에 멕시코는 미국의 제1위 수입국으로 떠올랐으며 올 1분기에도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액은 1150억 달러로, 대중국 수입액(1000억 달러)을 넘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철강노조(USW) 등 연관 산업 노조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범용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 관세 발표 전 한국 쟁겼다 "불이익 즉시 알려달라"

"관세 인상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 기업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있다면 즉시 알려달라"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안 발표(14일)를 앞두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측에 했던 말이다. 이들은 "향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얼마든지 한국의 뜻이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고위 인사는 "한-미가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이 임계 될 수 있는 불이익을 미국이 먼저 챙기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은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Investing in America)'인데,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나라가 한국이다.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미국은 22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110건을 발표했다. 이중 한국은 1억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20건을 투자했다.

"최대 투자국" 한국에 대한 배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조항에도 담겼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제품에 대한 '봉쇄령'에 가까운 이번 조치에는 4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첫 번째는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에 대한 (고관세)제의 절차 수립"이다. 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USTR 대표에게 '특히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에 대한 제외를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문장도 추가됐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산 특정 태양광 장비를 쓰는 곳은 한화큐셀의 조지아 공장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중국 견제에 반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통령의 특별 지시 형식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삼성전자가 투자금에 비해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것이나 배터리 재료인 중국산 흑연의 관세 인상을 유예한 것도 한국에 대한 배려"라며 "특히 한국 기업이 대신의 승패를 가를 접전지에 대거 투자했다는 점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 1면 '금리인하 기대'에서 이어집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고용과 임금 부문은 둔화가 계속돼 금리 인하를 부추기지만,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 관련 비용은 고공행진 중이다. 4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7만5000명 증가에 그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명 증가를 밑돌았다. 평균 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3.9%로 2021년 6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반면 3월 주

기비 상승률은 5.6%로, WSJ은 "Fed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주기기비 상승률은 3.5%까지 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Fed 금리 인하를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발표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보다 0.5% 상승해 월가 예상치(0.3%)를 크게 웃돌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2% 올라, 지난해 4월(2.3%) 이후 가장 높았다. 서비스 부문 물가가 전월보다 0.6% 뛰면서 PPI 상승 폭을

키웠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0.4% 올라 시장 전망치(0.2%)를 넘어섰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게 특징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4월 PPI에 대해 "뜨겁기보단 흔해졌다"고 평가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고금리) 정책을 현재 속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다음 금리 결정이 인상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소폭 누그러지면 금리 인상 공포는 달랠 수 있으나 조기 금리 인하로 이어진 건 어렵다는 게 전문가 전망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4월 CPI가 어느 정도 전진이 있더라

도 "Fed에 큰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월 CPI가 국내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6월에 열리기 때문에 4월 CPI보다 5월 CPI가 상대적으로 무게가 큰 재료"라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3월에 비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지현=아이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17일(금)	72~60	20일(월)	73~58
18일(토)	63~54	21일(화)	75~64
19일(일)	64~49	22일(수)	80~63

5월 16일(목) 78~5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SPECIAL STORY

MD 예비선거 결과 분석



래리 호건, 정치적 야망 불씨 살리나

공화당 표 확장성 모범
11월 선거 이기면 '대권 잠룡'

래리 호건(사진) 전 주지사가 3개월 남짓한 짧은 선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차이로 공화당 후보를 확정지으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호건은 21세 미국의 양당 정치 지형에서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민주당원 비율이 공화당의 두배에 달하는 메릴랜드에서 주지사 재선에 성공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재임하며 8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화당 소속이지만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와는 다른 정치색채를 보이는 호건의 기질은 선전에서 유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D 제5선거구 연방하원의원(1969-1975년)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1969-1975년)를 지낸 호건의 아버지 래리 호건 시니어는 연방하원의원 재직 시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탄핵 권고 투표에 찬성했던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었다. 그의 이러한 기질은 현직 공화당 주지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토하며 심지어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결이 다른 공화당의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내 아내가 이민자 출신인데 이민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항마를 자처하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끝내 포기하고 말았다.

호건은 지난 2월에서야 연방상원의원 출마를 발표하고 가장 늦게 선거전에 뛰어 들었으나 민주당 유권자까지 포섭하는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넉넉한 표차로 승리했다. 이번 예비경선에서도 상당수의 민주당 유권자들이 호건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론조사에 호건은 민주당 후보를 압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메릴랜드대학의 최근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늘 당장 선거가 치뤄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49%가 호건 전 주지사를, 37%가 트론 의원이라고 답했다.

호건 전 주지사의 경쟁력은 올소브룩스 군수를 상대로 더욱 앞섰다. 두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50% 대 36%의 우위를 보였다. 호감도 조사에서도 호건 전 주지사(64%)가 올소브룩스 군수(26%)를 압도했다. 메릴랜드 주민들은 공화당 소속의 호건 전 주지사를 지지하면서도, 연방상원의원 다수당으로 어느 당을 더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화당(35%)보다 민주당(55%)을 더 선호했다.

민주당 예비경선 선호도에서는 트론 의원(34%)이 올소브룩스 군수(27%)를 앞섰다. 하지만 부동층이 39%에 달해 향후 판세를 예상하기는 이르다. 마이클 핸머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유권자들이 아직 민주당 예비후보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호건 전 주지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만, 결국에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릴랜드에서는 최근 37년동안 공화당 출신 연방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만약 호건이 11월 12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을 연방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고 단박에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김욱재 기자



'연방의원에 압승' 올소브룩스는 누구?

PG 카운티 토박이 억만장자 트론 꺾어
검사장-군수 거쳐 지명도 급상승

안젤라 올소브룩스(53·사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가 현역 연방하원의원을 꺾고 메릴랜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올소브룩스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메릴랜드 최초의 흑인 연방상원의원, 연방상원 역사상 네번째 흑인 여성 의원 기록을 갖게 된다.

그는 이미 유리전장을 켜던 인물이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급소 직원의 딸로 태어난 올소브룩스는 듀크 대학 학부와 메릴랜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0년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8년 동안 검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얻고서 2018년 카운티 군수에 도전해 성공했다. 카운티 군수 시절에도 연방수사국(FBI) 본부 건물을 유지하는 등 굵직한 업적을 쌓아왔다.

올소브룩스는 카운티 검사장에 당선된 후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로부터 낙점을 받아 멘토와 멘티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소브룩스의 능력이 과대포장돼 있으며 연방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낼만한 정치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올소브룩스를 스타로 만든 계기는 강력사건을 줄였다는 것인데,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범죄율이 급

감하던 시기였다.

워싱턴DC도 이 기간 살인사건이 절반 이하로 주는 등, 전반적으로 워싱턴 지역 치안이 안정을 되찾아가던 과정에 있었다. 또한 FBI 본부 건물 유지과정에서 올소브룩스 군수의 역할을 매우 미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본부 건물 후보지 두 곳은 모두 올소브룩스 군수 취임 이전에 확정됐으며, 메릴랜드 출신 연방상원의원들의 공이 매우 컸다.

최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800여명의 카운티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지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한인 중 상당수는 한인을 백인시하는 기존 흑인 정치인의 나쁜 관행은 되풀이했던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라티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전혀 펼치지 않고 흑인 커뮤니티만 챙겼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가 흑인이지만 과연 흑인 편에서 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국 내 흑인 경찰관 차별논란이 불거지며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소브룩스 군수는 합의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변호사비용만 최소 1760만달러를 집행하는 등, 완고한 관료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올소브룩스 후보가 11월 선거에 래리 호건을 꺾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하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많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억만장자' 트론 후보를 맞아 고전하는 것과 달리, 호건 후보가 올소브룩스 후보를 상대로는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욱재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오피스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차원 다른 검색” 구글 AI 공개 화제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검색엔진 분야에 뛰어들었다. 14일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열린 I/O 2024(연례개발자회의)에서 구글이 공개한 AI 검색은 복잡한 질문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동영상으로 보낸 질문까지 해석해냈다.

구글은 이 AI 검색 서비스에 ‘AI 개요’(AI overview)라는 이름을 붙였다. 생성 AI가 이용자가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으로 한 질문에 맞춤형 답변을 해주는 기능이다. 특정 정보 하나를 찾기 위해 검색창에 검색어를 계속 바꿔 입력하고, 소위 ‘뉴스’ 게시글을 피해 다니며 양질의 후기를 찾아야 했던 이전과 달리 검색 결과에 AI를 도입해 필요한 내용만 딱 제공하는 것이다.

‘AI 개요’는 지난해 I/O에서 구글이 선보인 검색엔진에 생성 AI를 결합한 ‘검색 생성 경험’(SGE)을 더 고도화시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기능이다. 구글은 특히 ‘시간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제각각 출처에서 정보를 따로 얻지 말고, ‘AI 개요’를 통해 한번에 결과를 얻으라는 것이다. 구글 측은 “제미나이가 검색에 드는 수고를 덜어 줄 수 있다(legwork out)”고 표현했다. 리드 리드 구글 검색 부사장은 “열 개 이상의 질문을 단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요가 또는 필라테스 학원을 찾아줘. 그곳은 어떤 곳인지, 또 집에서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제공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줘’와 같은 긴 문장의 검색도 AI가 맥락을 읽고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김철웅 기자, 마운틴뷰=홍상지 기자

‘숨은’ 쉼터... 주민신고 무서워 앞마당도 못나가

한간 50 중앙일보·USC 공동 기획
힐링 캘리포니아 프로젝트

사각지대 놓인 한인 노숙자 ②

주택 개조해 20명 공동 생활
이웃 의식해 수용 인원 줄여

“나 석*영·윤*지·문*승·양*영은 쉼터에서 술 먹는 즉시 나가겠습니다.” -2019년 9월10일.

LA한인타운 남쪽 워싱턴 블러바드와 사우스 그레이시 플레이스 인근 단독주택단지, 코너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 앞마당에는 화분 수십 개가 놓여 예쁜 정원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기 좋게 꾸며놔야 이웃에게 손가락질 안 받으요. 비싼 동네에 홈리스들이 모여 산다고 소문나봐요. 다시 쫓겨날 수 있잖나니까요.”

성공회 세인트 제임스성당(St. James' Episcopal Church) 김요한(68) 신부는 단독주택 앞마당의 근사한 정원 가꾸기를 일종의 ‘위장술’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 집은 한인 홈리스 20명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나눔의 집 무료 쉼터다. 김 신부가 한인 장년층 홈리스 20명과 공동체를 꾸리고 사는 소중한 안식처다. 2010년대 중반부터 김 신부는 주택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요한(왼쪽) 신부가 쉼터에서 로버트(가명)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제임스(가명)씨가 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자병으로 온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구모씨는 한국방송 보는게 낙이다.



을 임대해 한인 홈리스 16명과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동안 김 신부는 150여 명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그중 40명 정도는 취직해서 재기에 성공했다고 한다. 교회 신도, 독지가들이 물심양면 김 신부의 활동을 도운 덕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LA시 등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동안 김 신부와 홈리스들은 이웃 신고로 세 들어 살던 상가와 콘도에서 세 차례 이상 쫓겨났다.

“이 단독주택은 2019년 한인 독지가께서 홈리스를 위해 교회에 기증했어요. 처음에는 30명까지 수용했지만, 지

금은 이웃이 신고할까 무서워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김 신부는 ‘65세 이상, 일주일 이상 노숙’한 한인 시니어에게 무료 쉼터 숙식 우선권을 제공한다. 그는 LA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바드와 세인트 앤드류 플레이스 인근 텐트촌 한인 홈리스 약 10명도 돕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쉼터 내 한인 홈리스들은 이웃을 의식한 듯 앞마당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다용도실로 개조된 뒷마당 차고에서 TV 시청, 잡지읽기, 바둑 등 오락시간을 보냈다.

오후 6시, 쉼터 부엌에서는 중장년층

한인 남성들이 각자 저녁거리를 준비했다. 한 70대 시니어 남성은 라면을 끓였다. 쉼터 부엌은 뒷마당 출입문과 바로 연결됐다. 부엌 냉장고 위 벽면에 붙은 ‘술 먹는 즉시 나가겠다’는 자필 서명 각서 여러 장이 눈에 띄었다.

4000스퀘어피트 규모인 이곳 쉼터는 원래 가정집이었다. 다락방 포함 침실 5개, 화장실 5개였다. 김 신부는 한인 홈리스를 한 명이라도 더 들이기 위해 거실에도 칸막이를 쳐 방 3개를 추가했다. 각 방에서는 한인 홈리스 2~3명씩 룸메이트로 각자 1인용 침대를 쓰고 있다. 화장실·세탁실·부엌 등 공용공간은 청결유지에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이다.

3층 다락방에서 만난 김철수(가명, 67)씨는 “쉼터에서 다같이 산 지 7년째”라며 “건축일을 하다가 망했다. 그 뒤로 일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사람 통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쉼터에서 만난 이들 대부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눈치였다. 로버트 송(67)씨는 2023년 1월부터 이곳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영어 안 되지, 신분도 안 되지, 운전 면허도 없고 하나씩 일을 못 찾았어요. 길거리서 자면 목숨이 위험해요. 이런 쉼터를 제공해줘서 참 고맙지요.”

김형재 기자

“아침에 찬 바닥에서 일어나면 토큰 구해 버스서 몸 녹인대요”

한인 홈리스대부 김요한 신부
일반 쉼터는 무서워 기피
쉼터 오겠다는 문의 많아



냐’고 물었죠. 버스 토큰이 필요하다고 해요. 땅바닥에서 자고 나면 너무 추워서... 아침에 버스를 타면 몸이 좀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김요한(사진) 신부는 지난 2008년 교회에서 음식을 나눠주다 한인 홈리스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그 인연을 계기로 김 신부는 숨어 지내던 한인 홈

리스들을 모아 가족 같은 공동체를 꾸렸다. 김 신부가 갈 곳 없는 한인 홈리스들이 눈에 밟혀 같이 산 지 10년이 넘었다.

김 신부는 “지난 3년 동안 이곳 쉼터에서 11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대부분 늙고 아파 노동능력을 잃었다. 이분들이 같은 처지인 홈리스들과 최대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함께 지내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쉼터에서 재미있게 살면서 삶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신부는 “지금도 차에서 자는 한인이 많다. 천막이나 텐트에 사는 한인은 쉼터에 들어오고 싶다고 계속 전화한다”고 실정을 전했다.

“한인 홈리스는 LA 일반 쉼터를 무서워합니다. 이분들을 분산 수용해서 가족같이 함께 머물도록 해줄 수 있는 주거공간을 더 마련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어요.” 김 신부의 꿈이다.

▶나눔의 집 쉼터: (323)244-8810 김형재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한인타운 VA 센터빌 던킨 도넛 상가에서 “노상 총격 살인사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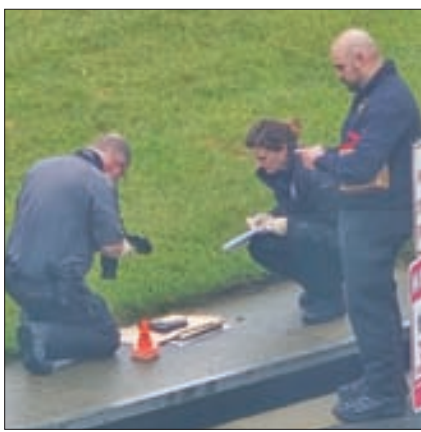
1명 사망, 1명 부상 “마약거래 관련”

한인타운으로 많은 한인들이 몰리는 버지니아 센터빌 29번 도로 옆 던킨 도넛이 위치한 상가 밖 주차장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5일(수) 오전9시30분 경 총격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또다른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상가는 건물 3개동으로 구성된 콘도 오피스 건물로, 약 30여개의 한인 운영 업소가 위치해 있다.

이 곳의 다른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박 모씨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건물 안쪽에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가 빼곡히 들어서 사건 수습을 하고 있었다”면서 “범인과 가해자 중에 한인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또다른 한인 이 모씨는 “엄청나게 큰 총격음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날이 못어 천둥소리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살인사건이 난 걸 알았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이긴 하

지만 불법마약 밀매와 관련된 사건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총격 사건 직후 용의자 한명이 달아났으나 경찰 당국은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고 모든 위험 요인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 두 정을 확보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 도착 직후 총상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현장에서 숨진 뒤였다. 다른 한 명의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상체에 총격을 당했다. 당국에서는 용의자와 피해자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윤미 기자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상원 민주당 후보 토론회서 집중 공격당해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사진) 연방하원의원이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후보 토론회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및 30~60일 이내로 끝나는 이민 관련 사건 처리 프로세스 마련 등을 내세웠다.

불법 이민자 관련 입장 표명의 불분명성, 태미 머피 후보 사퇴로 인한 반사이익,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관련 입장 표명의 모호함 탓이다.

13일 뉴저지주 사우소옌지 ‘SOPAC’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 의원 외에도 로랜드 햄, 파트리샤 캄포스메디나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김 의원이 다른 두 후보에게 비판의 대상이 됐다.

햄 후보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반발하는 프린스턴대학 학생들과 단식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캄포스메디나 후보는 그 자신이 엘살바도르 이민자임을 강조하며, 이민 문제에 무관심해보인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비판했다.

임기동안 이민 개혁과 관련해 어떠한 일을 했다는 이어진 공격에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고, 이 기간 이민 관련 문제를 실제 해결하지 않으려는 공화당 의원들과 대화하며 좌절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기간 이민 관련 문제는 퇴보했으며, 잔인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나아가 이민 관련 정책 요구에 김 의원은 더 많은 이민 법원 판사 고용

“이민 개혁은 기본권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며 “현재 진행형인 국경 및 가족 분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고, 캄포스메디나 후보는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들의 가족 해체를 막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팔 전쟁과 관련해선 햄 후보와 캄포스메디나 후보가 즉각적인 휴전 요구 등 강경책을 내세운 것과 달리, 김 의원은 이스라엘의 방어 전략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선에 머물렀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가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더했다.

‘메디케어 포 올’ 의제와 관련해선, 다른 두 후보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김 의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메디케어 포 올에 찬성 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사퇴 전이던 지난 2월, 김 의원과 뉴저지글로벌 투최 토론회를 통해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같은 모양새다. 당시에 김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강민혜 기자

양용씨 사망에 한인 정치인들 침묵

사건 발생 2주째 다 되어가지만 철저 조사·조의 공식 표명 없어 “한인 위해 뭐든 한다더니” 비난



또는 짧은 이메일 메시지로 유감을 표시하는데 그쳤다.

오렌지카운티의 미셸 스틸, LA카운티의 영 김 연방하원의원 역시 공개적인 발언이 없는 상태다.

데이브 민 거주상원의원도 아직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거주 상원에 출마한 최석호 전 주하원의원도 침묵 중이다.

대부분의 한인 정치인들은 언론의 연락을 받고서야 ‘조심스럽다’ ‘유감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진행과 전례를 보아온 한인사회 구성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A생활 30년차인 케이지 김(55)씨는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정신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 경찰 총격

에 의한 사망으로 이어지면 어느 누가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러한 평소 한인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며 표를 요구했던 정치인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벨리에 거주하는 김종선(60)씨는 “혹시라도 한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상황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침묵한다면 결국 커뮤니티 전체에 힘을 실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 관계 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선출직 일부 한인 정치인들은 사건 현장이 관할 지역구가 아니며 경찰이 내달 바디캠을 공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이런 방관적인 태도가 지속될 경우 또 다른 피해와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인성 기자

대한항공 ‘최고 일등석 기내식’ 수상



대한항공은 미국의 대표적인 여행전문지 ‘글로벌트래블러’가 주관하는 ‘2024 레저 앤 라이프스타일 트래블 어워즈’에서 일등석 기내식 메뉴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창간해 50만명 이상의 독자를 보유한 글로벌트래블러는 매년 온오프라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항공 및 여행 분야의 업체 순위를 발표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글로벌트래블러로부터 ‘최고의 기내식’ 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기내식 부문에서 수상했다.

대한항공은 일등석 승객에게 한국식 비빔밥, 매콤 소고기 갈비찜, 찹쌀 농어구이, 등심 스테이크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화조합)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B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85; VA MC-7782; TX 2501870; PA 106823; FL ML25226;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트럼프 총성 경연장된 재판정

'친 트럼프' 하원의장도 지원 나서 핵심 증인은 매일 방탄복 착용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들이 잇따라 재판정을 찾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성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NBC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여기에 연방 하원의장 등 친(親)트럼프 인사들도 연일 재판정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뉴욕 맨해튼법원이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장소가 된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D 벤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은 지난 13일 법정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이번 재판은 '영터리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 밖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이 재판이 전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담당 판사인 후안 마천 판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

벤스 의원은 이날 법정 안에서 재판 도중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실 시간으로 글을 올려 "39살인 나도 재판 도중 잠이 들 것만 같은 분위기"라며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졸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난에 반박했다.

이튿날 재판에는 더 많은 지원군이



(왼쪽부터)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더그 버검 주지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비베크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후보가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형사재판이 열린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욕 AF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행했다.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 주지사, 기업가 비베크 라마스와미,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플로리다) 등 공화당의 유력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이날 법정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높였다.

부통령직을 노리는 세 사람은 이날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벤스 의원과 비슷한 논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싸고 나섰다.

버검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미국인들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라마스와미는 "경찰의 주요 전략은 배심원들을 지루하게 만들어 굴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법정에는 친 트럼프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나타나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무기화했다"고 비판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재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그의 러닝메이트를 노리는 인사들의 모금 역량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몇몇 잠재적 부통령 후보 인사들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맨해튼에서 열리는 거액의 모금 행사에 참석해 모금 역량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제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NBC는 전했다.

슬로바키아 총리 암살 시도

수차례 총격 당해 생명 위독



은 이날 페이스북에 "잔인하고 무모한 공격에 충격받았다"며 "총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피코 총리는 2006~2010년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12~2018년 연속 집권하는 등 모두 세 번 총리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인 뒤 승리해 총리직에 복귀했다.

피코 총리는 친 러시아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크렘린궁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내 비판을 받기도 했고 CNN이 전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를 한 일로 비난을 받자 "난 자랑스럽다"고 했던 오르반 빅토리 헝가리 총리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수영 기자

친러시아 성향의 슬로바키아 총리가 수 차례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CNN에 따르면 로베르트 피코(사진) 슬로바키아 총리의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된 성명에는 그가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외곽 마을에서 총격을 받고 반스카 비스트리차(Banska Bystrica)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티슬라바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핸들로바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 지역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후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CNN이 보도했다. 슬로바키아 국영 통신사 TASR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슬로바키아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주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



"자유 세계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블링킹 기타공연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킹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의 한 라이브바를 찾아 현지 밴드와 함께 벌인 '록킹 인 더 프리 월드(Rockin' in the Free World)'를 기타로 연주하며 불렀다. [AP·연합뉴스]

컴캐스트 "스트리밍 피콕·넷플릭스·애플TV+ 상품 출시"

미국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업체들끼리 손을 잡고 묶음 상품을 출시해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NBC유니버설을 소유한 컴캐스트는 자사의 케이블방송·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NBC유니버설의 스트리밍 플랫폼 피콕과 넷플릭스, 애플TV+를 묶음(번들) 상품으로 이달 내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밝혔다.

자사의 케이블TV·인터넷 가입자들이 각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따로 구독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각 플랫폼의 콘텐츠를 모두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컴캐스트는 묶음 상품의 가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상품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콕은 월 5.99달러, 넷플릭스



는 월 6.99달러, 애플TV+는 월 9.99달러부터 요금이 시작된다. 컴캐스트의 묶음 상품은 유무선 통신회사 버라이즌이 이미 제공 중인 상품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라이즌은 현재 자사의 인터넷망을 통해 넷플릭스와 HBO의 스트리밍 서비스 맥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컴캐스트는 자회사인 NBC유니버설에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트리밍 플랫폼 피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컴캐스트는 기존의 케이블TV 가입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스

트리밍 업계 경쟁으로 피콕의 구독자 확대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영업 부진을 타개할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컴캐스트는 지난 1분기 케이블TV 가입자가 48만7천명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콕의 스트리밍 구독자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3천400만명으로, 넷플릭스의 2억6천960만명이나 디즈니+의 1억1천760만명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앞서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지난 8일 디즈니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가 울려부르던 각자 소유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와 훌루, 맥스를 합쳐 묶음 상품으로 출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스트리밍 업계에서 기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고객 이탈률이 큰 골칫거리가 되면서 더 많은 업체가 구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묶음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감독 망명

여배우에게 하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란 유명 영화감독 모하마드 라솔로프(52·사진)가 조국을 탈출해 유럽으로 망명했다.

14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솔로프 감독은 13일 SNS에 눈 덮인 산 봉우리를 담은 영상을 올리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통치자들을 향해 "당신들의 탄압과 만행 탓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탄압 기구를 깊은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란 망명자 대열에 합류했다"고 했다.

라솔로프 감독은 대변인을 통해 배



포된 별도의 성명을 통해 "길고 복잡한 여정 끝에 유럽에 도착했다"며 "감독과 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망명을 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솔로프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가 하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하잡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 형에 태형, 벌금형, 재산몰수형을 함께 선고받았다고 최근 그의 변호사인 바바크 카프리아가 알린 바 있다. 이지영 기자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빌딩 3층**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MAY 16th - MAY 23th, 2024

SANGARIA



산가리아 라무네 구슬 사이다

다채로운 맛, 시원한 세일

라무네 드링크(포도/리치/멜론/오렌지/오리지널/복숭아/딸기)
SANGARIA RAMUNE (GRAPE / LYCHEE / MELON / ORANGE / ORIGINAL / PEACH / STRAWBERRY)



6 Bottles in PACK
6개입



~~\$12.99~~ **\$6.99** *only*
6X6.76 OZ

GRAND OPENING
Richmond, VA
1381 W. Broad St.
Richmond, VA 23204

Stafford, VA
501 Rappahannock Dr. Stafford,
VA 22458

Centreville, VA
5200 Centreville Drive, L4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000 Meadowdale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12064 Pine Avenue Rd.
Springfield, VA 22150

Altamont, VA
41001 National Hunt Plaza
Altamont, VA 20141

Herndon, VA
490 Eason Street
Herndon, VA 20170

Elkton City, MD
8001 Elkton Highway
Elkton City, MD 21081

Calonsville, MD
5000 Gateway National Hwy
Dorchester, MD 21028

Rockville, MD
18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aple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본처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추가/감정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고장난 제품 비추니 “이렇게 해” ... “안경 못 봤어?” “책상 위”

‘구글 개발자 회의’ 현장 가보니

오픈AI ‘대화형’ ... 구글은 ‘생활형’ 검색엔진·안드로이드 등에 AI 탑재 1500페이지 문서도 한번에 이해 차량번호 찾아서 알려줘

“그것(AI)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14일 구글의 연례개발자회의인 I/O 2024의 개막을 알리는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나오고, 무대 위로 손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처럼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피차이 CEO는 “구글의 I/O는 의상이 바뀌지 않는 ‘에라스 투어’(테일러 스위트의 전 세계 순회공연)”라며 농담을 던졌다.

이날 행사가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대형 원형극장 쇼어라인 앰피시어터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개발자·기자·크리에이터 등 4300명가량의 인파가 몰렸다. 향후 구글의 방향성을 알릴 본격적인 발표를 앞두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자, 피차이 CEO가 말을 이었다. “구글은 본격적인 ‘제미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현재 구글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1인자’ 자리를 지켜오던 검색엔진 시장에서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생성 인공지능(AI) 분야에선 늘 새로운 기술로 치고 나가는 오픈AI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픈AI는



1 손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 연례개발자회의(I/O)'에서 연설하고 있다. 2 구글의 AI 제미니를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구글 화면 캡처]

구글 I/O 바로 전날인 13일 음성 대화 기능 등이 담긴 새로운 AI 모델 ‘GPT-4o’를 발표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선점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골랐다. 검색엔진·구글 포토·워크스페이스·안드로이드 등 이미 전 세계 약 20억 명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구글 제품 전반에 자사 AI 모델인 ‘제미니’를 녹여넣는다는 것. 탄탄히 쌓아온 구글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일상 곳곳에 제미니를 노출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구글은 본격적인 제미니 시대”

구글은 먼저 제미니이 울트라 1.0을 탑재한 챗봇인 제미니이 어드밴스드 구독자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 AI 모델(제미니이 1.5 프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어드밴스드 구독자 수는 약 100만 명이다. 제미니이 1.5 프로보

다 가벼우면서도 멀티모달(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여러 데이터를 입력 출력할 수 있는 모델) 추론 기능과 대용량 정보 처리 기능을 갖춘 제미니이 1.5 플래시도 공개했다. 이날 발표자로 무대에 오른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가볍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추론하는 능력이 뛰어나 긴 문서나 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요약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 하나. 주차장에서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차량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언제 차 사진을 찍어봤는지 모를 사진을 뒤적이거나 다시 차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글 포토이 용지라면? 구글 포토에 탑재된 제미니이 ‘내 차 번호가 뭐였지’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제미니이 내 사진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차량을 인식한 후, 차 번호를 알려준다. 이 기능은 울여름

출시된다. 이메일·문서·드라이브 등 구글 워크스페이스에도 제미니이 1.5 프로가 도입돼 여러 기능이 추가된다. 예를 들면 이메일에서는 사이드 패널에 ‘중앙일보로부터 온 메일 요약해줘’ ‘계약서 파일 받은 거 찾아줘’ 등의 질문을 하면 메일함을 일일이 직접 열어볼 필요 없이 제미니이가 바로 찾아주는 식이다. 글에 첨부된 파일까지 분석해 추론하는 능력도 갖췄다. 구글에 따르면 제미니이 1.5 프로는 150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한번에 이해하거나, 100개의 이메일이나 한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한번에 요약할 수 있다.

이날 I/O 현장에서는 2분가량의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을 여기저기 비추며 제미니이와 음성 대화를 나눈다. 책상에 놓여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묻거나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창밖에 보이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물어본다. 제미니이는 “고주파 스피커입니다” “암호화를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런던의 킹스크로스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바로 답한다. 중간에 여성이 “혹시 내 안경 못 봤어?” 물어보자 “책상 위 빨간 사과 옆에 있다”고 알려주기도 한다. 카메라에 담긴 장면을 기억해 이를 기반으로 위치를 스스로 파악했다.

빅테크 간 경쟁 더 치열해질 전망

이 영상은 구글이 인간처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미래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아스트라’의 데모 영상이었다. 시연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기술은 연내 구글 제품에 일부 탑재될 예정이다.

‘큰 한 방’보다는 구글 제품에 자연스럽게 제미니이를 녹여 구글만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에이전트’라는 미래 청사진까지 그리는 구글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픈AI의 챗GPT를 기반으로 한 코파일럿을 전 제품에 탑재한 바 있고, 아스트라의 데모 영상도 I/O 전날 오픈AI가 공개한 ‘GPT-4o’와 비슷한 성격의 음성 비서 모델이다. AI 생태계 구축에서부터 ‘인간 같은 AI 에이전트’ 시장까지, 가는 길마다 걸치는 빅테크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마운틴뷰=홍상지 기자

“약 시간 됐어요” “냉장고 채워줘요” ... AI가전 덕에 효자노릇

삼성전자 ‘AI 패밀리 케어’ 공개 스마트싱스 통해 자녀가 원격제어

“아버지가 오늘 아침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 오전 4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고 전화도 안 받으십니다. 현 위치는 ‘집’이라고 뜨는 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삼성전자 수월 디지털시티에 위치한 CX:MDE(고객 중심 멀티 디바이스 경험) 센터. 가정집처럼 꾸민 실험실에서 시연자가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타’를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청소기가 집 안 구석구석을 훑고 다니는 동안 스마트폰엔 청소기에 내장된 카메라가 촬영한 실내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직원은 “아직은 카메라를 통해 집안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정도지만 올 10월쯤에는 사람이 쓰러져



삼성전자 직원이 14일 패밀리 케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인공지능(AI) 라이프 솔루션 ‘패밀리 케어’를 공개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해 개발

됐다. 삼성 가전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스마트싱스’에 다음 달 탑재될 예정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AI 제품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AI 리더십을 더 확고히 할 것”이라며 “시니어를 돕는 패밀리 케어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도 스마트싱스를 통해 가전 간 연결성을 강조했다. 패밀리 케어는 연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해 가전을 맞춤 세팅하고 손쉽게 제어·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의 AI 기술을 적용한 효과다. 부모님의 TV·냉장고·정수기·인덕션·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가족들이 스마트싱스로 확인하고,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도 원격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가전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혈압약 복용 시간을 설정해두면 시간에 맞춰 조명이 바뀌고 스피커에서 음성 알림이 나온다. 동시에 정수기는 알맞은 온도의 물을 미리 준비된 컵에 따라 놓는다. 약 보관 서랍에 부착된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 감지해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냉장고 내부 카메라로 원격으로 식재료가 부족하지, 소비기한이 지났는지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할 수도 있다. 인덕션을 켜둔 채 부모님이 외출하면 자녀 스마트폰에 알림을 보내 원격으로 인덕션 전원을 끌 수 있다. 제어 기능의 거리 제한은 없어 해외에 출장 간 자녀도 스마트폰으로 부모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 가전만 연결되는 건 아니다. HCA(Home Connectivity Alliance)에 속한 글로벌 15개 가전업체 제품이

면 모두 스마트싱스에 연결할 수 있다. LG전자 제품도 연결 가능하다.

이날 처음 공개한 CXI랩은 1700평 규모로,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스마트 기기를 경험하게 될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꾸민 공간에서 총 3000여개 제품을 테스트하며 연구하고 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세계 가전 시장은 6700억 달러(약 920조원) 규모이며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AI 가전 시장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0.7%씩 성장한다.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는 침체된 가전 시장에 AI를 접목해 타개하려는 중이다.

LG전자 역시 AI가전에 주력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 깔린 7억대의 제품과 7000억 시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가속해 ‘공감 지능’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소중한 가족 건강 우메켄 덕 좀 보세요

우메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한 분들께 최고의 제품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6월 2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이벤트 1

우메켄 전제품 중
동일제품 2개 구입 시

20

% 할인

이벤트 2

발효 미네랄 L-칼슘
구입 시



Free Gift

L-칼슘(2달분)
무료 증정

• 이벤트 1, 2 중복 적용 안됨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타운 (443)878-902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미국 피벗 늦어지자... ECB는 내리고 BOJ는 올릴 듯

(Pivot·통화 정책 전환)

(유럽)

(일본)

각지도생, 올해 각국 중앙은행의 행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0여 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급습에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중심으로 긴축 대오에 합류했던 중앙은행들이 각자의 주관알을 튕기기 시작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요국 통화 정책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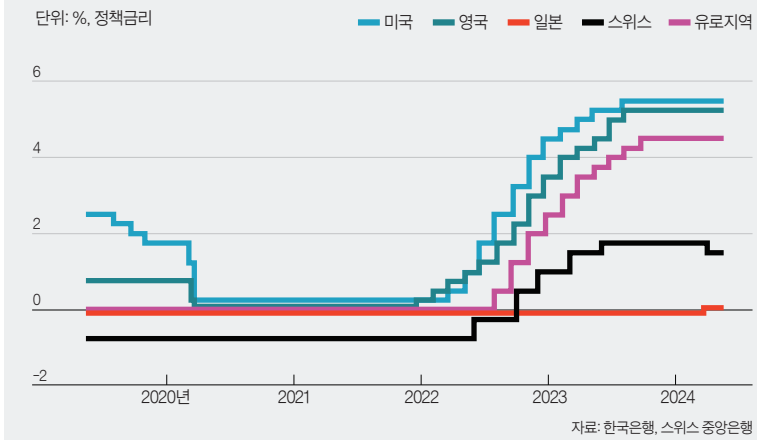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특정 국가와의 금리 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면 더 높은 금리를 좇는 자금이 빠져 나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환율 상승)한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돌입했던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걸 끄러운 일이다. Fed의 통화 정책에 발을 맞추는 이이다.

미국, '끈적한 물가'에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달라진 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다. 고용 시장은 뜨겁고, 물가는 끈적끈적하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임대료 등으로 인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기세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 대비 3.4% 상승했다. 전분기(1.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는 1년 전보다 3.7% 뛰며 시장 전망치(3.4%)를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1.6%·전 분기 대비 연율)이 전분기(3.4%)와 시장 전망치(2.4%)를 밑돌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 Fed의 피벗(Pivot·통화 정책 전환)이 지연되며 고금리와의 동거가 보다 길어질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완고하게 높은 임대료 때문에 Fed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내지 못한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피벗을 향한 Fed의 발걸음이 느려지면서 전 세계 통화 정책과 엮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Fed가 지난해부터 피벗의 시그널을 보내자 각국 중앙은행은 돌아설 준비 자세를 취해왔다. 게다가 물가와 경기 둔화 수준이 제각각인 탓에 나라마다 경제의 온도 차는 상당하다. 마냥 Fed의 움직임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각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 균열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4년은 미국 예외주의를 인정하고 경기 여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마이웨이



스위스·스웨덴 깜짝 금리 인하 영란은행, 이르면 6월 내릴 듯

17년 만에 정책금리 올린 일본 '수퍼 엔저'로 인상 압력 커져

한국, 인하 시점 원점 재검토 중국, 경기 살리려 통화 완화

건이 '목에 찬' 국가들부터 서서히 Fed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경기 침체 우려에 속속 금리 인하

주요국 중앙은행 중 피벗의 첫 테이프를 끊은 곳은 스위스 중앙은행이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낮췄다.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싸움이 효과적이었다는 게 인하의 변이다. 지난 8일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스뱅크가 '깜짝 인하'에 나섰다. 기준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낮췄다. 8년 만의 인하이다. 올해 1분기(-0.1%)까지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에 빠진 만큼, 물가보다는 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CB가 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Fed의 피벗을 기다렸다가는 격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란은행(BOE)도 이르면 다음 달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인화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Fed보다 앞서 금리를 내리는 건 부

담스러운 일이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며 자본 유출이나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서다. 수입 물가가 오르며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더 두려운 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통화 가치 하락을 감수하고도 경기 부양을 택하는 것"이라며 "유럽이 미국과 다른 길을 가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일본, 연내 2회 금리 인상 가능성도

ECB와 영란은행은 Fed보다 앞서 발걸음을 떤 것일 뿐 일단 방향은 같다. 반면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선택지에는 금리 인상이 놓일 전망이다. Fed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일본은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며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급락하며 추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엔화 가치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밀리며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등으로 달러당 155엔 수준에 거래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태롭다. '수퍼 엔저'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다.

BOJ는 일단 수퍼 엔저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수출 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뒤 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포석이다.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낮아지는 것도 막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관건은 수퍼 엔저를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BOJ 총재는 지난 8일 "만일 물가 전망이 상승하거나 상승 위험이 커졌을 경우 금리를 보다 빨리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해진다"고 말했다. 엔저로 물가가 예상보다 더 뛰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끈적한 물가에 피벗 늦어지는 미국



수퍼 엔저에 금리 인상 압박 커지는 일본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은 연내 2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재무성 차관보 출신인 이토 다카토시 컬럼비아대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엔화 약세가 지속하고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질 경우 BOJ가 올해 말까지 금리를 0.5%까지 두 번 올릴 수도 있다"며 "빠르면 올해 가을쯤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은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미국 달러 강세 속 엔화 가치가 바닥을 향해 가면서 아시아 국가의 통화 가치 절하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 가치 하락 폭이 확대될수록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가 통화 가치 하락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만큼,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화 정책 '웍더독' 현상 나타날까

당장 한국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일 금리 인하 시점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의 피벗이 지연되는 데다, 1분기 '깜짝 성장'과 국제유가·환율 변동성 확대 등 통화 정책의 전제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바뀐 것을 이유로 꼽았다.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대졸 규제와 고금리가 지속하며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도 한은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유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내수 감소세로 경기 둔화 우려

가 커지는 것은 통화 정책 완화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소득 3분위(소득 상위 41~60%)와 4분위(소득 상위 21~40%) 가구의 건전성은 악화하는 모습이다. 3분위 적자 가구 비율은 2022년 18.0%에서 지난해 19.2%로, 같은 기간 4분위 적자 가구 비율은 13.6%에서 14.5%로 높아졌다. 주택 구매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에 나선던 중산층이 고금리 장기화 속에 지갑이 얇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GDP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내수 위축이 이어지는 만큼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돈을 풀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1조 위안(약 189조원) 규모의 초장기채를 발행할 예정인 데다, 중국인민은행(PBOC)이 2분기에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각국 중앙은행이 마이웨이에 나서며 뚜렷해지는 통화 정책 탈동조화 현상은 결국 Fed의 움직임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물가 목표치(2%)를 향한 싸움에서 '라스트 마일(Last mile·목표 지점에 이르기 전 마지막 구간)'이 얼마나 울퉁불퉁할지 알 수 없지만, 시장은 Fed가 연내 2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흥국과 유럽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웍더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공개될 점도표에서 내년과 내후년 인하 횟수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ECB 인하 시행과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허현욱 논설위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 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3 YEARS ANNIVERSARY

창립 3주년 기념 고객 감사

다들 꼭 세일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고객님의 성원에 힘차게 달려 온 지난 3년!
 저희 케이마켓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개업 3주년 기념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4239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
 www.kmarketusa.com | 703-712-7089

자산5조 기준 15년째 그대로 규제 대기업만 2배로 늘었다

(대기업집단 편입 기준)

공정위, 시대착오 대기업 규제

GDP 2배 됐지만 지정기준 여전
2009년 48개→올해 88개로 늘어
274개 규제 받으며 경쟁력 흔들
“세계기업 땀때 국내기업 역차별”



음 도입된 1986년(32개)과 비교하면 약 2.8배에 달한다.

86년 제도 도입 당시엔 한국 경제가 해외와 단절된 폐쇄적 구조인 것을 전제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고 있다. 글로벌화한 시장에서 국내 기업 규제는 해외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된다. 국내 진출 해외 기업에 같은 규제를 가했다간 정치·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외국인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하지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대표적이다. 쿠팡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공시 의무 등의 책임을 지는 총수로 김범석의 장대신 법인이 지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의장은 미국 국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외

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다 올해 사람 대신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사람을 총수로 보든, 법인을 총수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등)를 마련했다. 쿠팡 외에 혜택을 받은 국내 기업은 두나무가 유일하다.

제도의 명분인 중소기업으로 경제력 집중도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한국 내 100대 기업의 매출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12.5%포인트 감소했다. 10대 기업으로 좁혀 보면 같은 기간 26.1%→19.6%로 줄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경제력 집중도도 낮은 편이다.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 중 한국은 100대 기업의 매출 비중이 15위로 하위권이었다. 10대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11위였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 중에서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규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감당해야 할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대기업 집단 제도는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기는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자산 규모가 커진 것은 기업이 성장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새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 부담을 느껴 자산 5조원을 넘기 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과 주식소유 현황, 내부 거래 현황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 공시된다. 또한 계열사 간 지원이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이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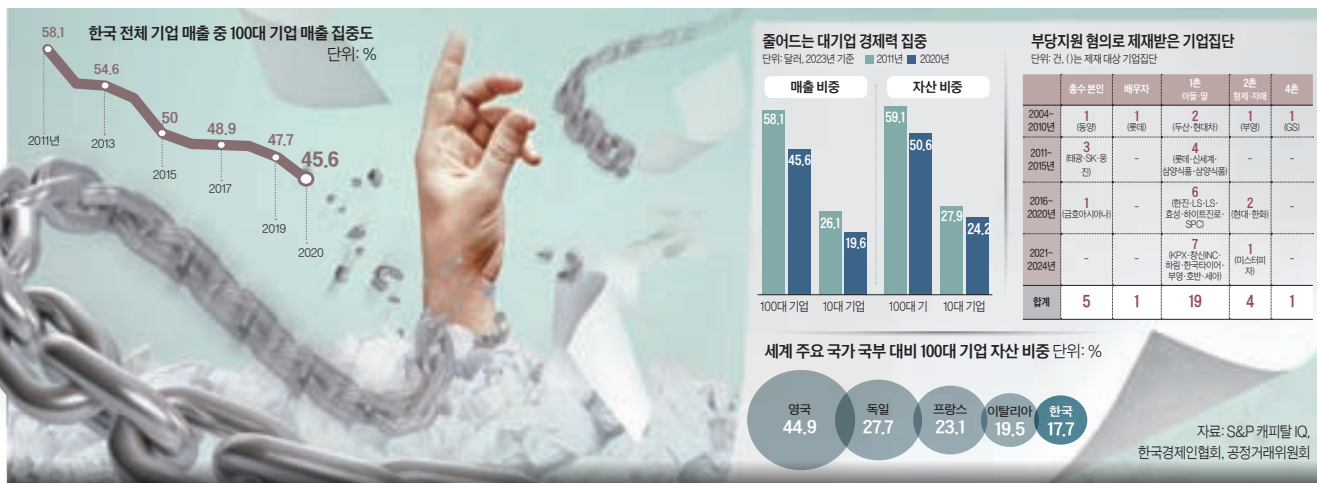
대기업집단 중 자산이 5조원 이상은 물론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올해 10조4000억원)까지 넘으면 상호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을 담으로 적용받는다. 그뿐 아니라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다른 41개 법률의 규제까지 받는다. 한경협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적용받는 규제 수는 274개 이상이다. 정희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력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강력하게 규제하면 되지 경제력 집중 자체를 규제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는 이렇게 부작용만 많은 뿐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 이제는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GDP의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부당한 내부거래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자정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규제 폐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3촌 이상 부당지원 20년간 1건인데, 4촌자료까지 무더기 요구

공정위 '제재 의결서' 보니

63건 중 19건이 총수 2세 관련인데 친인척의 주식현황까지 제출 의무 “2촌 수준으로 규제범위 현실화해야”



대기업집단 제도를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게 동일인(총수) 관련 규제다. 현재는 총수의 혈족 4촌, 인척 3촌과 계열회사 임원까지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묶는데, 적어도 이 범위라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직계 가족 이외에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이전 사실상 없는데도 친족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게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일보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로 제재한 63건의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주된 부당지원 대상이 총수(동일인)의 2촌(형제자매) 범위를 넘어선 경우는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15년 전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3건은 계열회사 부실로 인한 퇴출을 막기 위해 보증을 서거나 공공기관이 자회사로 지원하다 적발된 경우였다. 나머지 30건이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인데, 대부분이 아들·딸 등 2세 지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9건에서 주된 지원 대상은 총수 2세였다. 4촌이 지원객체가 된 건 GS의 계열사(스마트)였는데 그마저도 15년 전인 2009년 사건이다. 특히 제재가 이뤄

지기 전 총수 관련자 지원을 모두 매각하면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가 총수의 친족(혈족 4촌·인척 3촌)의 각종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건 친·인척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실제론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을 규제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여전히 혈족 4촌, 인척 3촌은 물론 계열사 임원까지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한다. 이들의 주

속식 차별 체제가 사회적 문제였다. 그러나 이후 계열 분리 등이 이뤄지면서 직계가족 중심으로 기업집단도 재편됐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도입 당시엔 몰라도 최소한 지금은 4촌 기업에 부당지원을 할 만한 기업이 남아 있지 않다”며 “자료 제출 의무는 총수에게 부과되는데 총수가 수십·수백 명의 친척 상황을 알 것이라는 전제 자체도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법인이 총수라고 해도 상호·순환출자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총수 지정과 친·인척 자료 수집을 통한 사전 규제야 아닌 사후 제재로도 부당지원 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고 공정위 스스로 밝힌 셈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수를 법인으로 지정하는 걸 일반화시키든, 총수 자료제출 범위를 직계가족이나 2촌 수준으로 줄이든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13.3%	42.9%	2.3%	0.0%
대우물음	당뇨	노화시각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찢어찢어, 바닥 못누움

sciatica, 좌골신경통

영치, 꼬리뼈

얼드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발목, 발가락,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민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KOREAN AIR DELTA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 가이드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관광의 모든 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낌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2차 6/18-6/28 (영어가이드) 3차 9/24-10/4 **마감 임박**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선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낌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마감 임박**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영어가이드) 10박 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마감**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마감** 인사이드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 (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마감 임박**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마감 임박** 10박 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마감 임박** 10박 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4~10/25 오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감**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3590+항공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사바산)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대낭	대만	싱가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p>현대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p>	<p>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p>	<p>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소,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악어농장, 백만년비유공원, 대곡특산물</p>	<p>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핑안만 해양관광공원, 아프로디테소, 파동야시장, 피피섬, 왓할롱 사원, 코끼리 트랙킹</p>	<p>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하노이, 엠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활관, 비단관광,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p>	<p>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본강, 일빈내원교, 켄가사당, 풍흥의집, 광고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시원, 섀샤사원, 다낭대성당</p>	<p>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목요일 국립공작물관, 자오공, 101빌딩, 라오하이제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련찰성담해변, 일월담, 구죽문화춘, 아류레국립공원, 자우판거리</p>	<p>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바이어베이, 리버랜드스, 헨더슨웨이브릿지, 하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무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섀트사신, 실로소버티</p>

메모리얼 데이 특선

나이아가라 워터스글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여행!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레차워스 국립공원 북아메리카 최대규모의 나이아가라 폭포(인개스너오탁송)

2박 3일 5/25~5/27 \$650

뉴욕 특선

업그레이드 된 디렉스 호텔, 브루클린 명소, 배슬 허드슨 아드, 옛지 전망대

1박 2일 5/26~5/27 \$450

성극 대니엘

\$199

5/30,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일매주 출발**

대행버스출발: 6/24, 7/22, 8/5

뉴욕 특선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일매주 출발**

대행버스출발: 7/22, 9/16, 10/7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 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일매주 출발**

대행버스출발: 7/8, 9/23, 10/21

뉴욕 동부 명도 핵심명소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1박 2일 \$39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단풍관광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일매주 출발**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일매주 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일매주 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수사' 이창수에 쏠리는 눈...이, 주변에 "신속히 정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수사라인들 교체 여부 관심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취임식 뒤 전국 최대 검찰청에 대한 지휘를 시작한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형사1부) 및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사건(반부패수사2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인사 패싱'을 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주문한 상황이다.

법조계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기존 수사팀 교체 여부다. 송경호 전 지검장을 비롯한 김장진 전 1차장, 고형근 전 4차장 등 지휘라인을 전원 교체한 상황에서 수사팀장인 김승호 형사1부장(명품백 사건)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수사팀 검사들마저 대거 교체할 경우 향후 김 여사 수사 방식 및 처리 방향이 바뀔 수 있어서다. 도이치 수사팀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을 검찰 수뇌부에 건의하면서 이른바 용산-송전 지검장(부산고검장) 갈등설 및 이번 경찰 인사의 진원이 됐다.

우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반환·거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공여자만 처벌 조항이 있다.

다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 등을 단순한 선물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인 점을 강조한 만큼 구체적 청탁이 오갔는지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등을 수사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최 복사는 네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사별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사건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난해 9월 발언하는 모습. (뉴스1·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난해 9월 발언하는 모습. (뉴스1·연합뉴스)

경우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세력들과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건네받아 매수·매도 시점과 거래량 등을 미리 약속하는 등 '동정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는지가 핵

심 쟁점이다. 검찰이 2022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의 1심 재판부에 보낸 종합의견서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거둔 수익(약 23억원) 등을 적시하고도 왜 장기간 소환 조사 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털어내는 것도 관건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두 사건 모두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주변에 전했다. 이 지검장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전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 시절부터 '들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열었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며 "유무죄 어느 쪽이든 사건에 대한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때문에 김 여사 사건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외부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 게 평소 자신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전주지검에서 지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يس타트 특허 채용 의혹의 중앙지검 이관도 대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 수사팀의 김 여사 소환 방침도 결국 외부로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며 "힘으로 억누른다고 수사 검사들이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 게 최근 검찰 분위기인 만큼 이 지검장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정원·정진우 기자**

정부 '국방의대' 설립 추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도움"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이번 '의정 갈등' 사태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의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 대비해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가칭 국방의대를 검토 중"이라며 "형태나 정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2011년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당시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군과 공공 의료기관에 의

무 복무하는 군의관 40명과 공중보건 60명 등 총 100명 정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국방의학원이 모델로 삼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서 흐지부지됐다. 현재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대의과대학'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방위의과대'를 통해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양성한다. 의무 복무기간은 미국이 7년, 일본이 9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정부의 국방의대 추진은 장기 군의관 부족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 명으로, 전체의 약 7.5%에 불과하다. 이외에는 36개월 간 군 복무 후 민간병원으로 돌아가는 단기 군의관이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단기

군의관 중 장기 군의관으로 전환한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장기 군의관이 늘어나면 군 병원에 베테랑 의사가 더 많아지고, 군 병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군의관의 안정적 공급은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실제 군은 현재 적오지 의무부대의 민간 개방도 추진 중이다. 우선 올해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주둔하는 15사단 의무대대를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여당 일각, 검찰 인사에 "국민 실망"...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단속 비상

검찰 고위직 인사의 후폭풍이 여론으로 번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검찰 인사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이뤄진 것이라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히 보여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며 "공정한 법 집행,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소환조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다면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날 수

석대변인에 내정된 과규택 당선인은 MBC 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한 것"이라며 "(김 여사) 소환조사만이 정답이라고 보지 않는다. 서면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도부에서조차 메시지가 엇갈리는 것은 이른바 '연쇄 특검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 관련 수사라인을 전면 교체한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은 "김 여사 방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대통령 내외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한

다면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론 인사는 "안 그래도 총선 참패

책임을 두고 '윤철한삼(윤석열 대통령 70%,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30%)"이라고 하는데, 이번 검찰 인사를 본 낙선 낙선의 의원들은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취지로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연달아 추진할 태세다. 특히 김 여사 특검의 경우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뉴스가 11일 공개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방법' 조사에서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59%, '검찰에서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31%였다. **심세롬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총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센터빌 타운홈
방3+와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2+차고2
하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와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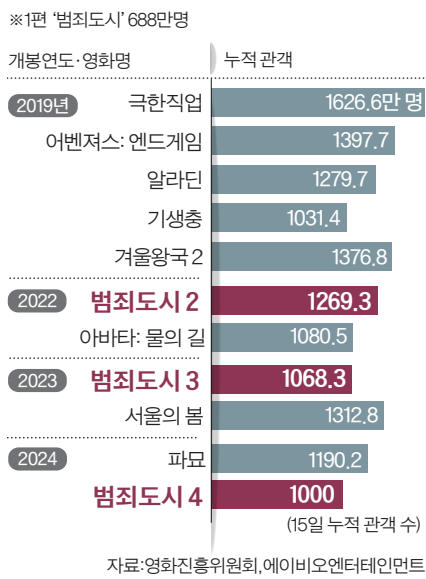
‘범죄도시’ 또 천만 넘었다 시리즈 4편에 4천만 대기록

액션·유머 ‘마동석 장르’ 통해 마동석 ‘관객 힘으로 만든 결과’

영화 ‘범죄도시4’가 15일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시리즈 영화 최초로 트리플 천만을 달성했다. 특유의 쇠주먹 액션과 유머를 겸비한 ‘마동석 장르’가 흥행의 신기원을 열었다. 마동석은 시리즈의 기획·각색·제작·주연을 맡았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2일째인 이날 오전 7시30분 누적 관객 1001만6610명을 기록했다. 시리즈 2·3편 때보다 빠른 추세다.

‘범죄도시4’의 천만 흥행은 국내 33번째, 한국 영화 중 24번째다. 할리우드 영화 ‘어벤저스’ 1~4편(4280만 명)에 이어 총 관객 수 4000만을 넘긴 두 번째 시리즈가 됐다. 배우로서 일곱 번째 천만 흥행(‘범죄도시’ 2~4편, ‘신과함께’ 1·2편, ‘베테랑’ ‘부산행’)을 터뜨린 마동석은 이날 영화사를 통해 “모두 관객 힘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답답한 속을 풀어드리는 시원하고 통쾌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범죄 없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영화 시리즈 최초 ‘트리플 천만’



‘범죄도시4’는 개봉 당일인 지난달 24일 82만 관객을 모았다. 개봉 2일째 100만, 4일째 오전 200만, 오후 300만, 5일째 400만, 7일째 500만, 9일째 600만, 11일째 700만, 13일째 800만, 17일째 9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전편의 대흥행으로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개봉 시기 중복을 피하면서 ‘범죄도시4’는 전국 최다스크린 수(2980개), 최고 82% 상영 점유율 등 극장가를 싹쓸이했다. ‘범죄도시1’(2016)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로는 이례적 흥행(688만 관객)을 거둔 뒤, ‘15세 관람가’로 수위를 낮추고 해외 무대를 넓힌 것이 주효했다. 1편의 장천(윤계상), 2편의 강해상(손석구)에 비해 3편부터 악당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패전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믿고 보는 고정 관객층도 생겨났다. 수사 과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캐릭터·액션을 시원하게 펼치는 ‘마동석식 서사’도 호응을 얻었다. 트레이드 마크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배우이자 제작자인 마동석의 특징이다.

한편 ‘범죄도시4’ 흥행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 영화 흥행은 통상 비수기인 4월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 14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4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영화 매출액은 636억원이며, 관객 수는 659만 명으로 역대 4월 최다였다. 이 기간 ‘범죄도시4’가 496만 명을 동원했다.

나원정 기자



10년째 쉬지 않고 공연 힘들지만 어려워야 재밌죠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김기민 수석무용수(오른쪽)의 리허설 모습. “표현력을 위해 음악과 책을 접하는 시간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사진 김기민]

세계 최정상 발레리노 김기민 내한 19일까지 ‘차이콥스키 2인무’ 첫선 “쉽고 발랄한 돈키호테도 선보일 것”

‘최연소, 최초, 최고’의 역사를 쓰고 있는 발레 무용수 김기민(32·러시아마린스키발레단 수석무용수)이 ‘발레슈프링 2024’ 공연으로 한국을 찾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이던 17살에 이례적으로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지그프리트 왕자 역을 맡은(2009) 김기민은 클래식 발레의 종가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에 입단(2011)해 동양인 최초로 ‘수석’ 타이틀을 거머쥔(2015) 세계 최정상급 무용수다. ‘무용계 오스카’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당스상(2016)을 받았다.

이번 공연(16~19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김기민은 발레단 동료 레나타샤 키로바와 ‘미코 발레의 아버지’ 조지 발란신 안무한 ‘차이콥스키 파드되(2인무)’를 춘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카페에서 김기민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이콥스키 파드되 한국 공연은 처음이다.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다. 2018년 미국 뉴욕 발란신 페스티벌에 초청받았을 때 이 작품을 선보였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다. 그때 한국에서도 올리고 싶

다고 생각했다.”

-줄거리가 없는 발란신의 작품은 어떻게 표현하나.

-“연기가 필요한 발레와 음악성이 필요한 발레가 있다. 차이콥스키 파드되는 후자다. 음악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움직임이 중요하다. 어떤 캐릭터,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폭이 굉장히 넓다. 100명의 무용수가 차이콥스키 파드되를 춘다면 100가지 버전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음악에 따라 원하는 대로 표현하면 된다.”

-‘돈키호테 그랑 파드되’도 함께 공연하기로 했다.

-“나머지 하나는 대중적인 작품을 골랐다. 발레 돈키호테는 한마디로 쉽고,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발레슈프링’ 1막은 발레 클래스로 진행된다.

-“백스테이지도 공연의 연장이고 예술이다. 연습실에서 동료 무용수의 춤을 보면서 감동하는 경우도 많다. ‘이걸 무대 위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했다. 1막이 시작되면 플리에, 탄두, 제페 같은 기초 동작부터 시작해 센터 워크까지 클래스와 똑같이 진행한다.”

-마린스키 수석이 된 지 벌써 10년 차다.

-“실감이 안 난다. 공연을 정말 많이 했고 시간을 꽉 채워 쓴 것 같다. 마린스키 극장은 연간 거의 쉬지 않고 공연

을 올리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하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공연을 자주 올렸다. 해외 원정 공연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나가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때도 있다.”

-20대에 두 번이나 마린스키극장에 단독 공연을 올렸다.

-“무척 감격스러웠다. 내게 ‘커리어’의 의미는 승급이나 수상이 아니다. 단독 공연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만큼 팬이 많은 무용수라는 의미니까.”

-슬럼프나 힘들었던 순간은.

-“2016년 부상으로 1년 쉬었지만, 그 시기가 슬럼프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승급 직후, 상을 받은 직후다. 뭔가를 해냈을 때 항상 더 힘들어졌다. 부담되고 스트레스도 받는다. 다만 어려운 걸 즐기려고 한다. 어려워야 재밌으니까.”(웃음)

-불혹의 김기민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20대를 돌아보면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30대를 보낸 현역 무용수이길 바란다. 사람들은 젊어지고 싶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빨리 늙고 싶다. 40살이 되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홍지유 기자

조석래 회장, 차남 품어주고 떠났다

(효성그룹 명예회장)

고(故) 조석래(사건)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고, 의절 상태인 차남에게도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여 유언장을 작성해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했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명예회장은 의절 상태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은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

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은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최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이 아버지로써 결국엔 아들을 품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유언장에서 화합을 강조한 만큼 또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승을 기자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은폐 의혹

경찰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사진)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14일 오후 8시30분부터 8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

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전로를 변경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김씨 측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 매너저도 입건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속사는 14일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너저와 통화를 했다”며 “상황을 알게 된 매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경찰서로 가자수했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진료 내용

-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신경발달치료
- 보닉스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우리말 바꾸기

‘파토’?, ‘파투’?

무언가 일이 잘못되는 경우 ‘파토’가 났다는 말을 많이 쓴다. “약속이 파토 났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토를 놓았다” “결혼이 파토가 났다” 등처럼 쓰인다.

이렇게 사용되는 ‘파토’는 표준어일까? 자주 쓰는 말이라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표준어가 아니다. 표준어는 ‘파투’다. ‘파투’는 한자어로 깨뜨릴 파(破)와 싸움 투(鬪)로 이뤄져 있다. 직역하면 싸움을 깨뜨린다는 뜻이다. 즉 싸움판이 깨져서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정확하게는 하투 놀이에서 무언가 잘못돼 판이 무효가 되는 것, 또는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점차 일이 잘못돼 흐지부지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됐다.

따라서 앞의 예문은 “약속이 파투 났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투를 놓았다” “결혼이 파투가 났다” “여자친구가 파투를 났다” 등으로 고쳐야 한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는 “실생활 언어 습관을 보면 ‘파투 나다’보다 ‘파토 나다’의 빈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되는데 ‘파토 나다’가 표준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이 올라 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언중에게 쓰임이 많은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파토’는 ‘파투’의 잘못이므로 ‘파투’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오피니언

조울증 환자에 가해진 무지한 폭력



수잔 정
소아정신과 전문의

양극성 질환이라고도 불리는 조울증은 두뇌라는 장기의 병이다.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두뇌 세포에서 분비되는 뇌전과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기분이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땅바닥까지 떨어져 마치 북극과 남극을 오르내리는 듯해 양극(bipolar)이라는 말을 쓴 것 같다.

조울증이 이처럼 주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임에 비해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조현병은 사고의 변질로 망상이나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얼마전 조울증을 앓던 한인이 경찰 총격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조울증에 관해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었고, 조울증 환자를 다루는 방법을 훈련받았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양극성 질환은 본인 잘못이나, 부모의 탓이 아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약 4일간 이유 없이 에너지와 의욕이 넘치고, 평소엔 하지 않던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도박이나 쇼핑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말이 빠르고 많아지며,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조증(hypomania)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우울 증세에 빠져들어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를 제2형 조울증이라 부른다. 또 들뜬 기분이나,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듯한 상태가 약 7일 계속(대부분은 그 이전에 병원에 강제 입원이 필요함)되며, 계속 주제를 바뀌거나 쉽게 잊어버리고, 잘못된 자신감에 들떠서 큰돈을 낭비하거나 위험한 성관계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증(manic)

뒤에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경우를 제1형 조울증이라고 한다. 자살의 위험은 제2형이 더 높다. 조울증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30% 이상의 환자가 자살을 기도하고, 5명 중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무서운 병이다.

양극성 환자들은 심한 우울감 이외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술이나 약물에 중독되기 쉽다. 게다가 원인 모를 분노의 감정 때문에, 자신이나 주위 사람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양극성 질환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이유는 조절 불가능한 우울, 불안, 분노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 관찰하기 위함이다. 그 후 진단이 내려지고, 양극성 질환이 확정되면 리튬-테라피와 같은 항정신제,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항정신제 등을 투약해 정서를 안정시키고 사고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그런데 증세가 심한 환자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신(과대망상증이라고 함)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대화, 즉 말

이라는 기능은 뇌의 전두엽에서 행해지는 높은 위치의 사고 기능이고, 인간은 이를 통해 동물과 달리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총격에 숨진 한인 피해자는 하이킹을 좋아했다고 한다. 만일 정신과 상담사가 기록이나 부모님과 대화해 환자를 취미가 하이킹이라는 것을 파악해 이를 경찰에게 알려 대화 유도의 소재로 활용했다면 피해자의 감정 조절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포유동물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순간 ‘투쟁도피반응(Fight or Flight)’을 보인다. 즉, 목숨을 걸고 투쟁을 벌인다는 의미다. 자신이 싫어하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끌려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환자였다면 밖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대신, 부드러운 말이나 위로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조울증의 유병률은 50명 중 1명이나 된다.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빈부과 상관없고, 남녀 비율은 비슷하다. 조울증 환자는 선천적으로 심신이 예민해 몸도 자주 아프고, 인간관계에서도 상처를 쉽게 받는다.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의료진은 환자에게 맞는 약을 찾아내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 도움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 총격에 숨진 한인 조울증 환자는 감정을 조절해 위기를 넘기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입원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지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정신과 환자들에게 또 이런 야만적인 폭력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

팔로우업 퀘스천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

특검 보고서에서 당신을 ‘기억력 나쁜 노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뭘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당신의 기억력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나? “당신이 질문하도록 내버려 둘 만큼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긴 하다.” 석 달 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폭스뉴스 기자와 조 바이든 대통령 간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기사는 불편한 질문을 연거푸 던졌고, 대통령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모든 질문에 답을 했다.

백악관 회견장에선 이런 후속 질문(Follow-up Questions)이 일반적이다. 상대가 대변인이든, 국가안보 보좌관이든, 대통령이든 마찬가지다. 손 치켜들고 차례 기다리던 다른 기자들도 동료기 후속 질문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다.

또 질문 하나며 불평하거나 핀잔 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한번 받은 질문권은 보통 후속 질문 2-3개까지 포함한 패키지로 인정하는 분위기

다. 그래야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질문의 ‘빌드업’을 통해 원하는 답을 얻을 수도 있다.

질문의 주제를 한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지난달 11일 미-일 정상회담 후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온 첫 질문은 ‘고물가 대책’이었다. 남의 나라 정상을 세워두고 뭐하는 짓인가 싶지만, 이를 문제 삼거나 간섭하는 백악관 직원은 없다. 이래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답하는 사람 역시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법한데 굳이 끈대로 답을 한다. 그만큼 잘 준비됐고, 그래서 밀리지 않는다는 일종의 메시지다. 이런 문화에 익숙할 외신 기자들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느꼈을 실망은 이해가 간다.

‘북-러 군사협력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는 질문에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은 BBC 서울 특파원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선 동문서답이 여러 번 반복됐다. 4개 분야를 기계적으로 나눠 진행한 탓에 정말 궁금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 없었다.

후속 질문이 가능했다면, 질문 분야를 한정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아쉬움이다. 회견을 끝내며 “앞으로 이런 기회 더 자주 만들겠다”고 했으니, 다음은 진일보한 기자회견을 기대해본다.



BED BUG

민대퇴사! ELIMINATE!

more ▶ 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 skpmva@gmail.com


무료 견적

571-992-5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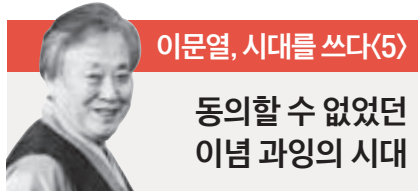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양일보

① 워싱턴 중양일보



워싱턴 중양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월북한 부친 그린 『영웅시대』… 시대와의 불화 시작이었다



이문열, 시대를 쓰다(5)
동의할 수 없었던 이념 과잉의 시대

나는 두 가지를 믿지 않는다. 하나는 만병통치약이고, 다른 하나는 오로지 하나의 정답만 존재한다고 믿는 태도다. 1980년대에는 만병통치약과 유일한 정답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치 과잉의 시대, 이념 과잉의 시대였다. 이념의 인간들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라 하면 병든 정치, 병든 경제, 심지어 역사와 미학(美學)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반대로 자기들의 정답을 승인하지 않으면 보수 반동 이거나 비겁한 자로 치부했다.

하지만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 세상사가 어떻게 수학 문제처럼 깔끔하게만 풀리겠는가. 심지어 수학에서도 두 개 이상의 정답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란한 1980년대와 문학을 같이 시작했다는 게 내 불운이었고, 그럼에도 큰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 나의 아이러니였다. 그런 모순을 나는 '시대와의 불화'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1992년 가을 출간한 산문집 제목이었다.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신적 유행, 그 유행의 이상 열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1984년 장편소설 『영웅시대』 출간

1984년 장편소설 『영웅시대』의 출간이 내가 당대와 불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지금 생각하면 약간의 차이를 부렸던 것인데 『영웅시대』의 '작가의 말'에 나는 이런 문장을 썼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기에 평소에는 오히려 더 가슴 깊어 물어 두게 되는 하나의 얘기가 있게 마련이다 (...) 내게 있어서 '그 얘기'는 바로 『영웅시대』, 아니 6·25를 전후한 우리의 불행한 가족사였다."

남로당 중간 간부였다가 월북한 공산주의자 이동영의 전락(轉落)과 남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통해, 이동영의 모델인 내 아버지, 그가 선택한 이념의 모순을 해명해 보겠다는 생각이었다.

말이라는 무책임한 그릇에 담긴 생각의 다발에 불화한 이념이, 어떻게 피 묻은 칼이나 화약 냄새나는 총이 되는가. 그것이 내 오랜 관심사였다. 나중에 작가가 되리라는 예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떠올린 이야기도 결국 아버지 얘기였다. 하지만 남북한 체제를 모두 비판해 1980년대의 이념 과잉을 드러내는 제3의 입장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떤 것은 미처 쓰지 못했고, 어떤 것은 애매하게 감춰둬



이문열씨의 1984년 장편 소설 『영웅시대』는 당시 진보문학 진영에서는 호된 비판을, 보수 진영에서는 참신한 전쟁소설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소설 배경이 된 경북 영양 석보면 이씨의 고택마을. [중앙포토]

6·25 전후 불행한 나의 가족사 일생 통해 꼭 하고 싶던 이야기 남로당 간부 이동영 모델은 부친 가족의 고통 통해 이념 모순 조명

야 했다.

지난 회에 밝힌 것처럼 나는 4세기 백제의 요서경략설을 다룬 소설 '그 찬란한 여명'을 1981년 6월부터 중앙일보에 일일 연재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꼭 한 달 전인 그해 5월 말 한수산의 연재소설 '육망의 거리' 필화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대단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다.

"하여튼 세상에 남자놈 치고 시원치 않은 게 몇 종류가 있지. 그 첫째가 제복 좋아하는 자들이라니까. 그런 자들 중에는 군대 갔다 온 애기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는 자들이 또 있게 마련이지."(중앙일보 1981년 5월 22일자)

소설 검열, 보안사 끌려가 고문 당해

소설의 이런 대목 등이 문제가 돼 한수산씨는 물론 당시 중앙일보 정규운 편집위원, 권영빈 출판부장 등 일곱 명이 보안사로 끌려가 길게는 4박 5일간 지독한 고문을 당했다. 그중 하나였던 시인 박경만은 고문 후유증으로 술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신세가 돼 결국 1989년 세상을 떠났다. 1982년 문학잡지 '세계의 문학' 가을호부터 민감한 내용의 '영웅시대'를 연재하며 나는 그런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동영의 행적을 실감 나게 그리려면 6·25 당시 북한의 실정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무엇보다 자료가 변변치 않았다. 월남한 사람도 여럿 만났다. 그러나 전문(傳聞)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 자료에 걸신들리다시피 한 나는 일본 도쿄의 조종련 계통 서점을 방문할 생각까지 했다. 차라리 주인공이 달에 떨어졌더라면 자료조사만 철저히 하면 달의 자연환경을 그럴싸하게 그럴 수 있을 텐데, 남한에서 북한까지 정신적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38만km보다 최소한 1만km 더 먼 39만km라고 한탄했다.

북한자료 찾느니 달 그리는데 쉬울 정도

소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1980년대 전반기는 급진적·전투적 민주주의가 조금씩 자라나던 시기다. 진보 문학 진영의 좌장 백낙청이 1970년대 주장한 시민주학론을 대체해, 생산대중의 자기표현 욕구를 강조하는 채광석·김명인 등의 민주적 민족문학론이 힘을 얻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념 허무주의에 기울어 자기부정에 시달리는 공산주의자의 내면을 그린 『영웅시대』가 곱게 보였을 리 없다. 민주주의 진영의 거센 비판 가운데 상당수가 『영웅시대』를 표적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운동의 한 전위집단은 나를 반동(反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반대편에서는 『영웅시대』를 반겼다. 1985년 MBC가 6·25 특집극으로 제작했다. 훗날 드라마 '모래시계'를 히트시

남북한 모두 이념과잉 비판하러다 '한수산 필화사건' 의식해 못 써 진보문학선 이념허무주의 맹공격 결국 영웅시대 연재 뒤 3년간 절필

킨 김종학 PD가 당시로는 사상 최대 제작비인 3억5000만원을 들여 만들었다. 도식적인 반공 드라마에서 벗어나 공산 체제의 내부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중앙일보에서 제정·운영하던 제11회 중앙문화대상 예술상도 『영웅시대』로 받았다. 비록 소수였을 망정 시대의 명분을 앞세운 진보문학 진영의 공격은 절필까지 생각하게 할 만큼 부담이 컸다. 실제로 '영웅시대' 연재를 마친 1984년 봄부터 3년간 나는 절필을 선언했다. 중편이었던 '사람의 아들'을 장편으로 개작하는 데 힘을 쏟았지만, 실은 나에게 대한 집요한 비판이 한 원인이었다.

나를 다시 세상에 불러낸 것은 1987년 이상문학상을 안긴 중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다. 수상 기념 연설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의 문학은 오랫동안 엄숙하기 그지없는 두 검열관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검열관은 그시대 그 체제 그 권위의 옹호와 유지에 문학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때로는 법률로 때로는 현실적인 불리(不利)로 두 눈을 부라렸습니다. 거기에 비해 다른 한 검열관은 그들이 그리워하는 다음 시대를 앞당겨 실현하는 데 문학이 봉사해야 한다고 때로는 야유와 독설로, 때로는 악의에 찬 목살로 이 나라의 문학 정신을 몰아대 왔습니다 (...) 현명하게도 또는 교활하게도 나는 처음 양쪽 모두를 향해 미소를 보내는 것으로 내 문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곧 나는 양쪽 모두의 수상쩍어하는 눈빛에 시달리게 되었고, 차츰 눈을 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수층에 반사이득 준 발언, 나도 반성"

앞서 언급한 문학평론가 김명인은 1990년 계간 사상문예운동 겨울호에 '한 허무주의자의 길찾기'라는 평론을 발표했다. 내 작품 대부분을 통독한 다음 내 문학세계 전체를 조망한 작가론이다. 내가 허무주의적 반이념의 칼날을 변혁이념에 대해 혹독하게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2년 MBC의 대담 프로 '현장인 인터뷰 이사람'의 출연 제안이 들어와 김명인을 초청했다. 그가 묻고 내가 답하는 식이었다. 1박 2일간 경북 영양의 고택마을, 서울 용두동의 과거 서울사범대 자리, 장편 『젊은 날의 초상』의 배경의 하나인 경북 영덕의 대진항 등 나와 관계있는 장소를 옮겨다니며 이야기를 나누고 술도 꽤 마셨다.

'이사람'은 1992년 5월 1일 방송됐다. 당시 이런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김명인: 현실 정치에서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데, 힘이 없는 쪽의 주장이 무성하다고 해서 힘을 많이 가진 쪽의 주장을 편들어 균형을 유지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힘이 없는 쪽은 진보진영. 내가 굳이 편들지 않아도 좋은 힘 세 보수의 편을 드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내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내가 1980년대 변혁 지향적인 사람들의 단점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분명히 기득권층이나 보수층에 반사이득을 준 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가끔 심각한 자기반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층이 얻은 반사이득을 나보고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기 전에 단점이나 모순이 없도록 진보문학 진영의 주장을 보완해 나에게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대담 후 김명인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1 이문열씨의 1992년 산문집 『시대와의 불화』. 2 중앙일보 1981년 5월 22일자에 게재된 한수산 연재소설 '육망의 거리'. 이날의 내용이 문제가 돼 한수산씨 등이 필화를 겪었다. 3 MBC '현장인 인터뷰 이사람'에 출연해 문학평론가 김명인씨(왼쪽)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문열씨. [사진 MBC, 중앙포토]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연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시 설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로 안 된다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된다.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모두 22대 국회 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과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이다. 추 당선인은 최근 여러 자리에서 “대통령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누가 국회의장이 되건 22대 국회의 첫 화두는 개헌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제1당인 민주당은 이달 말 개헌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대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무당적화’, 나아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국회마다 개헌 논의가 있었다. 21대 국회의 김진표 의장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 개헌에 힘을 쏟았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근 40년이 다 된 87년 체제 헌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엔 많은 이가 공감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을 공론화하는 게 맞다. 문제는 미래 세대, 정치의 발전을 향해 가지 않고 당장 자신들의 눈앞 이익을 챙기고 보려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나오는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을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 “대통령 4년 중임제 적용을 윤석열 현 대통령의 임기부터 적용해 2025년 12월 차기 대통령을 뽑도록 개헌하자” 등의 이야기는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 범야권(192석) 의석수가 개헌선(200석)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아예 그 기준을 낮추겠다는 건 거대 야당의 오만이자 야욕에 다름 아니다.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개헌을 지지할 수 있는 108석을 준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 주장에도 위헌적 요인이 많다. 나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추 당선인의 주장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개헌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다룬다는 느낌을 준다. 개헌 논의는 어디까지나 비생산적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크고 긴 구도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차기 대선의 유효리를 따지는 식의 정략적 접근으로 결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오늘 선출될 22대 국회의장, 개헌 적극 추진할 듯
눈앞의 정략적 이익 우선한 개헌은 공감 못 얻어**

부인을 운전기사 채용했다는 공수처장 후보자, 사실인가

오동운(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모(50)씨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22개월간 차량 운전직으로 일하면서 54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운전직에서 퇴사한 김씨는 2년 뒤 재입사해 ‘외근직 실장’으로서 같은 연봉을 받았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판사 출신 로펌 변호사의 부인이 운전기사로 실제로 일했는지 의아하다. 야당에선 탈세를 노린 위장취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오 후보자의 장녀는 20세 때인 2020년 재개발을 앞둔 경기도 성남시 땅 60.5㎡(18평)를 모친으로부터 시세보다 싼 4억2000만원에 산 사실이 밝혀졌다. “장녀가 세금까지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았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이주비 대출로 충당했다”는 게 오 후보자 측 해명이나 이 역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금여를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불법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부당한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공수처장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자리다. 그만큼 공직 후보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수사 대상을 봐도 검사와 판사,

장성급 장교, 대통령비서실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망라한다. 스스로의 처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면 다른 공직자를 수사할 자격이 있겠는가.

특히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정부·여당과 특검 수사를 밀어붙이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98일 만에 지명된 오 후보자에게는 석 달 넘게 처장·차장이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악화한 내부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숙제도 주어졌다. 조직 안팎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해내기 어려운 과업이다.

오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의혹도 제기됐다. 기부 내역 직업란에 ‘자영업’으로 적었다는 대목도 석연치 않다. 오 후보자가 법관의 정치 운동 관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닌 지도 규명이 필요하다.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오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오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오 후보자는 일반인의 상식으로선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사안들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1인당 25만원, 정말 민생 살릴까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채 상병 특검법’ 등 여러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동떨어진 이슈 같지만 공통 요소가 있다. 모두 현 정권이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총선 민심이 ‘정권 심판’에 확실히 손을 들어준 지금의 현실에선 국민 다수가 공감하면 막아서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의 경우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한다. 많은 전문가도 위헌 소지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 논리가 국민에게 먹혀들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이 최선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서민 가계가 지금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자영업 매출은 코로나19 직전보다 50% 이상 늘었다. 그간 빚으로 버텼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최근 몇 년 새 오히려 줄었다. 명목임금은 조금 올랐는데 물가가 꺾중 뛰어서다. 올 1분기 파산신청 건수는 2021년 같은 기간의 배 이상으로 늘었다. 4인 가구 100만원의 지원금은 서민에게 큰돈이다. 삼권분립을 앞세운 민생지원금 반대는 한가하게 들릴 수 있다.

문제는 판 데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의 비합리성이다. 부자들에게 그 돈의 효용이 크지 않다. 지원금을 받으면 원래 지출하려던 돈은 아끼고 지원금을 쓴다. 그래서 고소득층에겐 현금 지원이 추가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가 떨어진다. 2020년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투입 예산 대비 26~36%에 그쳤던 것(한국개발연구원 분석)도 그런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인식 때문에 그 뒤로도 몇 차례 이어진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려면 약 13조 원이 필요하다. 세수가 부족하니 나랏빚을 내야 한다. 정부가 거액의 빚을 얻는 데는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국채 발행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이는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 이들은 한편으

론 소비 지원금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모순에 직면한다. 일종의 구축 효과다. 일시에 풀린 돈이 들쭉수는 물가인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현금을 나눠주면 소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발상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전 국민 25만원’ 카드가 민주당에 당장은 꽃놀이패가 될지 모른다. 특별법이든, 추경이든 25만원 지원이 성사되면 자신들이 해냈다고 생색낼 수 있고, 좌절되면 윤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다고 비난할 소재가 된다. 그러나 본질은 나랏빚으로 경제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현금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다. 앞에선 대중의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공당이라는 신뢰를 받기 어렵다.

명백한 포퓰리즘이 정국을 뒤흔드는

**전 국민 지급 효과 의심스럽지만
나쁜 체감경기에 일각선 기대도
정부, 양극화 해소 등 적극 나서야**

데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가뭇지 않다. 당정은 야당의 ‘25만원 지급’을 무력화할 만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속보치)로 깜짝 성장을 하자 고무된 기색이 역력하다.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주장이 먹혔겠느냐”는 식이다. 보수 정권의 안일함이 결국 문제다. 1분기 성장엔 수출 기여가 컸는데, 반도체가 수출 증가의 83%를 차지했다. 대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7.9% 늘 때 중소기업은 2% 줄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소매 판매 지표는 마이너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가 도처에서 체감경기 부진을 가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오랜만에 호전된 거시 지표에 방심할 때가 아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엄밀하게 살펴야 한다. 양극화 해소에, 취약층의 ‘기회 사다리 구축’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정부의 분발이 필요하다.

수석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88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1제1차 인쇄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日経新聞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안하게!

 Bank of Hope 와 함께 하는

43rd 중앙일보 Student Art & Video Contest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제43회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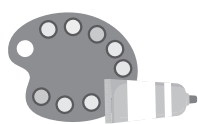
- ✓ 온라인 출품 시스템 (미주 전 지역에서 온라인 출품 가능)
- ✓ 아시안 최대규모 시상 및 장학금 수여 (총 241명 / 총 11,700 불)
- ✓ 미술부문 최대 3 작품까지 출품 가능 (주요상 제외 중복 입상 가능)
- ✓ 영상부문 8학년 이상 (개인, 팀(최대 4인)단위로 참가 가능)

작품 접수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7월 7일(일)

참가비 안내

\$20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Bank of Hope 고객 50% 할인 /
10인 이상 단체 10% 할인 (중복 할인 없음)



미술 부문

- 참가대상 프리스쿨 ~ 12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자유 주제
- 참가부문 유치부 (Preschool ~ kinder)
초등부 저 (1~2 학년)
초등부 고 (3~5 학년)
중등부 (6~8 학년) 고등부 (9~12 학년)
- 작품규격 제한 없으나 기재 필요
(태블릿드로잉 허용) (3D 조각, 조형물 제외)



영상 부문

- 참가대상 8 학년 ~ 12 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희망 (Hope)
- 참가부문 개인, 팀(최대 4 인) 단위 참가 가능
- 작품규격 영상길이
(1~3 분, 16:9 가로비율)

총 시상
241명

시상금
총 만불 이상

시상내역

상 명	부 문	미술부문		영상부문	
		수상인원	시상금	수상팀(전부문)	시상금
대상	초등 이하	1명	\$1,000	1팀	\$500
	중등 이상	1명	\$1,000		
1등	각 부문 (1명)	5명	\$300	2팀	\$300
2등	각 부문(3명) 중고등부(6명)	21명	\$200	5팀	\$200
3등	전 부문	70명	\$20	15팀	\$20
4등	가작	100명	상장	20팀	상장

*영상부문 인기상 1팀 \$200



세부 정보 및
온라인 참가 신청
artcontest.koreadaily.com

문의:
213-368-3723 (2577)
(중앙일보 교육연구소)

Sponsored by  Bank of Hope

Hosted by  The JoongAng

40 Celebrating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MAY 16th - MAY 23rd, 2024

골라먹는 모찌~ 종류에 관계없이! 2 for \$5.99

MORE MOCHI ICE CREAM
PICK ANY 2 FLAVORS!



~~Reg. \$5.99/Each~~ **MUST BUY 2**
2 \$5.99
FOR

2 FL OZ X 6 PCS/PKG







NET WT 2 - 400 g (14.1 OZ) CANS - TOTAL 800 g (1.76 LB)
 DRAINED WT 2 - 180g (6.3 OZ) CANS - TOTAL 360 g (0.79 LB)

14.1 OZ X 2 CANS /PKG
\$10.99

CANNED WHELK
해오름 풀깃한 골뱅이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May 16,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폭우때 천장·벽 물 샐다면 점검 필수

주택 곰팡이 어떻게 대처할까 2022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가정의 47%가 곰팡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미세곰팡이의 경우 토양, 공기, 음식, 집안 등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다. 곰팡이는 포자를 공기 중에 방출해 확산시키는데 열린 창문, 에어컨, 현관문 등을 통해서 이동한다. 여기에 습도가 있을 시 더 빨리 확산되는데 특히 목재 건물은 곰팡이로부터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몇 년 새 남가주 일대도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붕이나 벽에 누수가 발생한 가구들이 많아 곰팡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주택 곰팡이 발생 원인과 제거 및 방지 요령을 알아봤다.



물이 새는 지붕이나 벽을 장기간 방치하면 곰팡이가 급속도로 확산돼 주택 피해는 물론 호흡기질환 위험도 있으므로 점검을 받고 가능한 빨리 수리해야 안전하다. (unsplash.com 제공)

변색, 냄새 외 호흡기질환 겪을 수도
누수, 파이프 파열 시 즉시 수리해야

▶곰팡이 확인하려면
지난겨울 폭우로 지붕 누수를 겪었다면 곰팡이 발생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인스펙션 전문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이맘때쯤 곰팡이 곰팡이 발생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한다. OC 소재 한 인스펙션 업체에 따르면 “지난 폭우로 벽이나 지붕이 샐다면 곰팡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누수가 있었던 곳이 변색됐다면 전문업체에 진단을 받아 검사 후 수리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곰팡이는 육안상 관찰되지 않지만 냄새로 알 수도 있다. 곰팡이 냄새는 특유의 고양이 소변 냄새나 기름냄새가 난다. 이외에도 변색이나 냄새도 나지 않지만 곰팡이로 인해 건강 이상 증세를 겪을 수 있다. 이상 증세로는 인후통, 눈 가려움증, 기억력 상실, 천식 악화, 두통, 재채기, 피부 발진 등이 대표적이지만 장기간 노출 시엔 자가면역 질환을 겪을 수도 있다. 다만 어떤 이들은 아예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발생 원인
곰팡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습기다. 그래서 폭우로 지붕 누수가 있거나 지하실에 홍수 범람, 파손된 파이프, 잘 닫히지 않는 창문, 벽이 새는 등 습기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곰팡이 핀 곳을 발견하면 흠오너들은 그곳만 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누수 현상이 시작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습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겨울 폭우를 빈번하게 겪고 있는 남가주 주민들도 곰팡이 발생 확인을 위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해졌다.
전문업체들은 “주택 내 습하고 먼지가 많은 곳은 곰팡이가 발생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라며 “만약 호흡기 계통에 건강 이상 증세를 겪는다면 이는 냉난방 시스템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곰팡이 유무 확인을 위한 인스펙션은 필수다.

▶제거하려면
겨울 우기처럼 습도가 높은 시에는 제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60% 미만으로 유지하면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소량의 곰팡이를 발견했다면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전문가는 “보통 일반 가정에서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표백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표백제는 유리나 금속 표면에 있는 곰팡이를 없애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벽이나 지붕 같은 곳에는 오히려 곰팡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면 흠오너가 직접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왜냐하면 곰팡이 퇴치는 케이스별로 달라 일괄적인 솔루션이 없기 때문이다. 즉 곰팡이 유형, 문제의 심각성 등을 꼼꼼히 살펴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남가주 주택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검은곰팡이(black mold)의 경우 진균독을 방출해 근육통

과 관절 통증을 야기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게 안전하다.
대부분의 곰팡이 제거 전문업체들의 경우 상담은 무료이며 살균비용은 350달러 미만, 전체 덕트 청소비용은 1500달러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만약 집 전체에 곰팡이가 퍼졌다면 문제의 심각도와 발생 위치, 원인, 제거 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가 소요될 수도 있다.

▶예방하려면
누수나 파이프 파열 시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집안 습도를 60% 미만, 대략 55%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냉난방 시스템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이외에도 지하실이나 다락방처럼 폭우 때마다 침수나 누수를 겪는 공간이 있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집 전체에 곰팡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
▶3면 '주택 곰팡이'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혼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아이돌 열애설만 나와도 주가 출렁, 인적 리스크 큰 엔터주

월드 스타 BTS가 속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지옥을 맛봤다. 지난달 22일 하이브 측이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 민 대표가 기자회견으로 반박에 나선 가운데 하이브 주가는 1주일 만에 15%가 빠졌다. 1주일 사이 증발한 시가총액만 1조원이 넘는다. 민 대표는 인기 걸 그룹 뉴진스 등을 키워낸 스타 아티스트이자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도 “하이브가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민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요동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엔터주(株) 전문가들은 ‘사람’이 곧 ‘상품’인 엔터 산업 특성상 인적 리스크에 따른 타격

이 다른 업종의 종목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민 대표 건으로 엔터업종의 인적 리스크가 기획자·경영진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가 변동성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를 비롯한 SM·YG·JYP 등 빅4 엔터사는 K팝 인기를 등에 업고 수년간 눈부신 실적 성장을 이어왔다. 각 기업에 소속돼 아이돌 그룹이라는 히트 상품을 만든 민 대표 같은 K팝 전문가 역시 높은 가치의 상품이다. 제조업에 비유하면 인기 수출품 중 하나에 문제가 생겨 시장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달 초 현재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방송·엔터주는 총 57개, 시가총액은 23조3768억원에 달한다. 빅4 외에도 키이스트 등 다른 엔터사, 스튜디오드래곤 등 콘텐츠 제작사, CJ ENM 등 방송·광고·콘텐츠사업자들이 있다. 그중 인적 리스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쪽은 엔터사, 특히 K팝 수출 최전선에 있는 빅4다. 전체 관련주 중 빅4의 시가총액 비중만 약 58%다. 외국인 투자자도 그만큼 많이 유입돼 있어 주가 변동성이 크다. 이들 엔터주는 아이돌 하나가 대박

이 나면 주가도 속된 말로 ‘떡상’(급등을 뜻하는 신조어)하는 특성 때문에 ‘한탕’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투자자가 적잖다.

그 이전에선 소속된 인기 아이돌 하나가 크고 작은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주가도 요동치는 리스크가 투자자를 따라다닌다. SM은 2014년 엑소 멤버

버일부가 탈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100억원 가량 증발했다. YG는 2018년 말부터 박병의 전 멤버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르면서 역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100억원가량이 날아갔다. 아이돌의 열애설이 터질 때마다 주가가 급락했다가, 열애설 부인 직후 급등하는 촌극도 수시로 벌어진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엔터 산업의 인적 리스크는 다른 업종보다 예측·관리가 어렵다”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자주 쉽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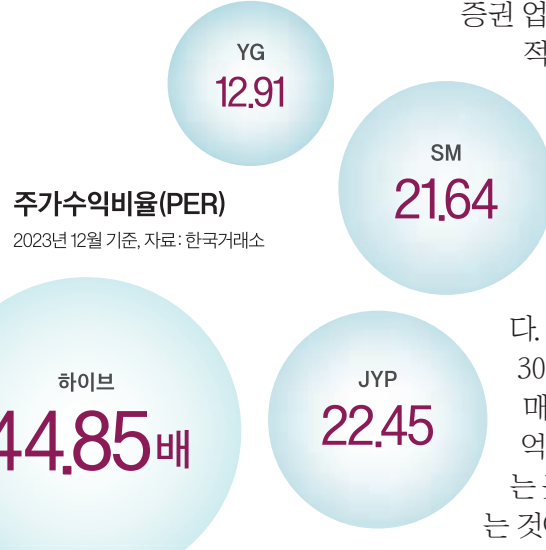
이 때문에 엔터주의 과대평가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빅4라고 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원을 넘는 곳이 없고, 연 매출도 하이브(지난해 2조1781억원)를 제외하면 1조원을 넘기는 곳이 없는 데 비해 주가가 높다는 것이다. 하이브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해 말 기준 44.9배로 코스피 상장사 평균 PER(11.3배)의 4배에 달한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지표다. 낮을수록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됐다는 의미다. 하이브의 경우 주가가 EPS 대비 40배

넘게 고평가됐고 코스피 상장사 평균 대비로도 4배 고평가됐다는 얘기다. SM(21.6배)과 YG(12.9배), JYP(22.5배)도 PER이 높다.

이러다 보니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공매도 세력이 유독 활개를 치는 분야 중 하나가 엔터주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빅4 주식을 7000억 원어치 넘게 매도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엔터주 특유의 인적 리스크와 과대평가 논란 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성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 가치투자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도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팬덤이 많은 하이브의 세븐틴과 SM의 에스파 등이 컴백(활동 재개)하면서 2분기 미국·일본 등지에서 K팝 활력이 살아날 것”이라며 “장기적 관에선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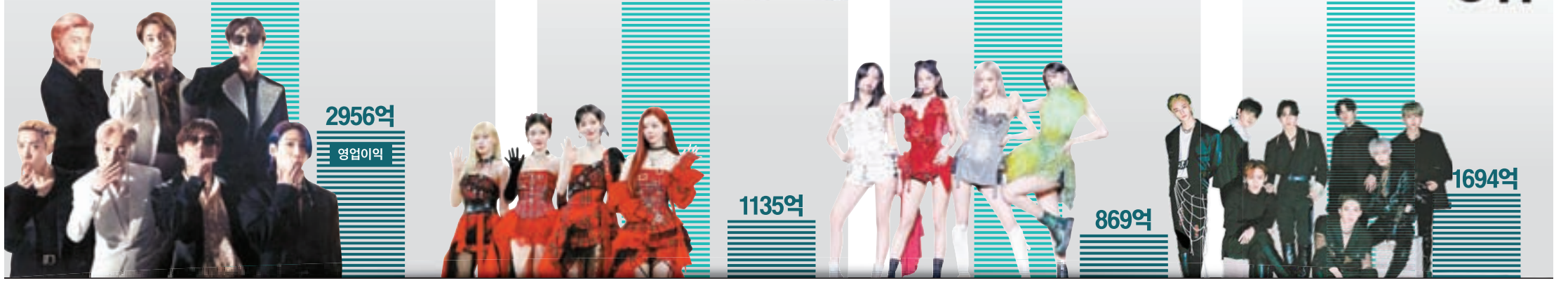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는 음반 제작·유통사 여러 곳을 산하에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시장에 어필했지만, 민 대표 건으로 이 또한 엔터 산업의 불확실성에서 자유롭기 힘든 시스템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창균 기자

2조 1781억 매출



9611억

엔터테인먼트 기업 실적
단위: 원, 2023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불확실성 시대, 채권과 우선주에 주목하라

기업실적은 명확하지만, 통화정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융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업인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이 2024년에는 10.8%, 2025년에는 1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과 4월 마지막 주에 발표된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비둘기파적인 흐름, 즉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흔

들었다(PMI는 40여 개국 2만 7000개 회사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PMI는 경기의 확장구면과 위축구면을 구분 짓는 50선 근처에서 맴돌며 ‘예상 밖의 부정적인 상황(downside surprise)’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 밖의 긍정적인 상황(upside surprise)’과 경제 활동 증가 속도에 대한 ‘예상 밖의 부정적인 상황’의 조합이 등장했다. 이 조합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대하는

경기 연착륙을 어렵게 만든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역시 연준처럼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판단 내리기 어렵게 됐다. 수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을 벗어나 금리 인상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가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인가. 자주 바뀌는 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것보다 더 나은 투자 전략이 있다. 경제적으로 탄력적인 자산, 그리고 가치평가상의 이점이 있고 현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부문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채권은 현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채권 투자자들은 15년 만에 가장 높은 시장수익률을 맛보고 있다. 채권 수익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여전히 이자수익이다. 높은 이자 수익은 단기적인 채권가격 하락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과세 채권들은 스프레드(발행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차이)가 다소 좁은 편이지만, 유동화 채권은 스프레드 매력도가 두드러진다. 주목할 만한 유동화 채권으로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비기관모기지 담보증권(MBS), 상업용 모기지담보

증권(CMBS)이 있다. 채권과 유사한 현금흐름 특성을 지닌 우선주의 스프레드 수익률이 현재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섹터에 비해서도 가장 높다. 우선주는 올해에도 순발행이 낮아 공급이 제한적인 가운데 기술적 호재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주는 또한 약 7% 정도의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한다. 우선주 유형 중에서도 1000달러 액면 증권과 코코본드(CoCos)라고도 불리는 조건부 자본증권은 특히 금리 변동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사이라 말릭 누빈 최고투자책임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밸류업 '벌칙' 강수에 중·일 증시 펄펄...자율 맡긴 한국은 싸늘

중국 증시가 날아오르고 있다. 지난 6일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지수)는 6572.45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6500선을 돌파한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1월 22일(5001.95)과 비교하면 30% 넘게 상승했다. 중국 증시의 반등은 중국판 기업 밸류업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증시 부양을 위해 중국판 밸류업으로 불리는 '신(新) 국9조'(자본시장 관리 감독과 리스크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견9개 조항)를 발표했다.

일본 증시도 불타오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벤치마킹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조는 일본이다. 지난 2014년부터 10년이 넘게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온 일본은 지난해에는 중장기 기업 가치 증진 방안을 발표했고, 가치평가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JPX 프라임 150'지수도 출시했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는 3월 사상 처음으로 4만 고지를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34년 전 버블경제 시절의 역사적 고점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상이다. 10일 기준 닛케이225지수는 3만8229.11로 4만 고지에선 내려왔지만, 그래도 연초(33288, 1월 4일) 대비 15% 가까이 상승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침울하다. 2월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증시 부양에 나섰다. 밸류업 1·2차 발표 직후에는 도리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모두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감은 다른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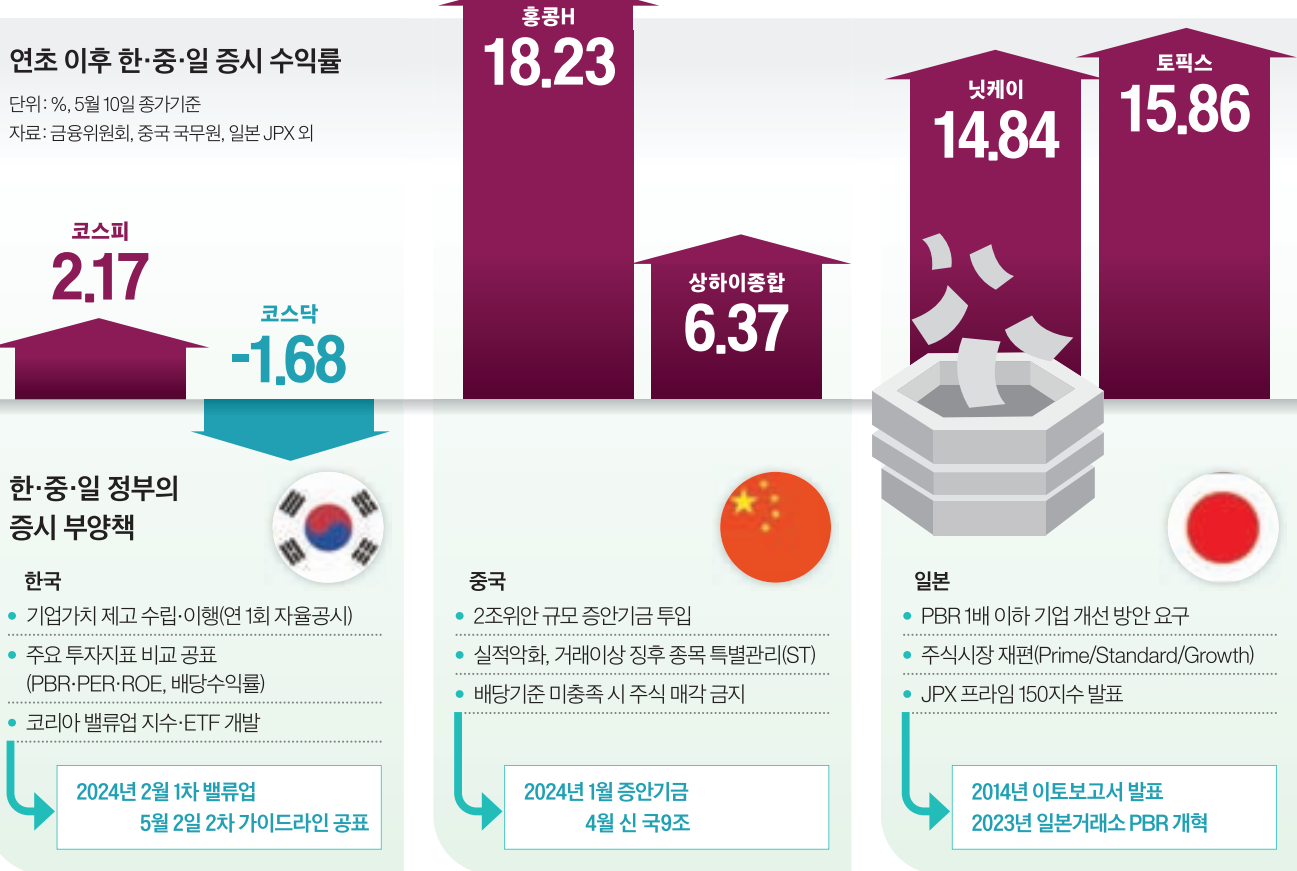
중국의 신 국9조는 상장사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밸류업과 두드러진 차별점은 페널티를 통한 강제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신 국9조에는 배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이번 신 국9조는 자금조달, 불법적인 주식매도, 낮은 배당율, 낮은 상장폐지율 등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아온 분야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밸류업 대상의 확대도 주목할 점이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월 국유기업 평가지표에

중국, 대주주 주식 매각 제한 등 포함 홍콩H지수 연초보다 18% 상승

일본, 조건 미달 땀 상장폐지 명시 닛케이지수 사상 첫 4만 돌파

한국은 밸류업 발표하자 실망 매물 "유인책 없이 기업 선의에만 의존"



시각총액을 추가했는데, 이번에 신 국9조를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국영기업에 국한됐던 밸류업 트렌드가 민영기업까지 확대된 것이 정책의 큰 변화"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1월 평가지표 변경으로 상장사 시총의 47%에 달하는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화한 데다, 지난달 신 국9조로 민영기업까지 밸류업을 확대하며 중국 증시의 하방경직성을 확보하는 중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조 격인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래 10년간 이어진 장기 프로젝트로 기업 거너번스 개혁을 추진해왔다. 2014년 아베 내각의 경제 책사였던 이토 구니오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가 "주주권 강화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이토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시초로 꼽힌다. 이후 2015년부터 도쿄증권거래소(TSE)에 의해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됐고, 2022년 4월에는 증시 구조를 재편(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하면서 각 시장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했다.

상장 조건 불충족 시 해당 기업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밸류업의 효과는 상당했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2022년 4분기 대비 180개 줄었다. 타니모토 유카 포브스 재팬 웹 편집장은 "밸류업의 강화로 일본에서 요즘 상장사에 요구되는 부담감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가치의 향상을 하지 않으면 시장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본질적인 상장 의의를 명확하게 다시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밸류업은 이제 첫발을 댄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 이를 이행하는 과정까지 제시하는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이 골자다.

하지만 공시 참여 여부는 물론 목표 설정 방법까지 모두 자율에 맡겼다. 그러다 보니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직후 증시는 흘러내렸다. 강력한 유인책은 없고,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월 한국 밸류업 발표안이 이미 시장의 실망감을 샀음에도 이번 2차 지침안에서도 심도 있는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며 "이달 말

밸류업 최종안을 공개하기까지 더 갈고 닦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주주환원을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 완화 및 상법 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차 밸류업 발표에선 상장사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주 상세하게 발표됐지만,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소각 등 영향력이 큰 거너번스 개선 내용은 빠져 있다"며 "정부의 세제 혜택과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제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를 모르는 건 아니다. 지난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이라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것은 현재 미국 외에는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난한 과정"이라며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기재부, 법무부 등 부처를 초월한 전방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

가) 해소 노력이 단순한 주가 부양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는 "기업의 경쟁력이 없다면, 정부 주도의 밸류업을 시도한다 해도 결국 단기적 효과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이익집단의 합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산업 인재 양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타니모토 유카 편집장은 "일본의 선례처럼 한국도 밸류업의 시행이 주식 시장의 건전화에 더해 기업 가치의 향상, 나아가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1면 '주택 공방이'에서 이어집니다
▶ 매매시 고려사항

공방이가 발생한 집은 매매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예비 바이어들 역시 공방이 문제가 있는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거주 법에 따르면 공방이 핀 집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때 바이어에게 이 문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판매가를 낮춰 구매자가 구매 후 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또 다른 옵션으로는 클로징 전 셀러에게 수리를 맡기게 할 수도 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PENDING	PENDING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집값 상승기에 양도세율 올리면 집값 더 오른다”

국토연, 문 정부 때 집값 분석

다주택자 양도세율 1% 올리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0.206% 증가

집값 상승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칠 경우 오히려 매매가격이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집값 상승 전반기에는 투자 목적의 시장참여자와 더 좋은 집으로 이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나 집값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든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매수자의 추격매수가 이뤄지지만, 매도자의 판매 희망 가격이 높아지면서 매물 회수 등으로

매도(공급)가 크게 감소해사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거래를 제한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시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매물이 감소하는 집값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율을 높이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다고 밝혔다. 실제 양도소득세 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거래량은 6.8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다른 부작용도 불러왔다. 시장 참여자들은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며 세금을 회피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도 썼다. 지인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특수거래도 빈번해졌다. 시장에 정상적인 매도 매물이 줄게 되고, 가격을 자극하

는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인근 지역에 대한 전이효과 및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고, LTV(담보인정비율)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 매매거래량은 8.7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김원 기자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장엄한 조각적 공간, 아잔타 석굴사원

기원전 560년 무렵 인도의 카필라바스투에서 태어난 싯다르타는 29세에 ‘위대한 포기’, 곧 출가를 감행했다. 35세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후 복인도 각지를 다니며 수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했다. 당시에는 큰 나무 밑 같은 야외 설법장이 곧 사원이었다. 그러나 81세로 열반한 후에 제자들은 고정된 수행처가 필요했고, 신도들은 영원한 예배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오랜 시행착오 후 드디어 석굴사원이라는 영구불변하는 건축형식을 얻게 되었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중인도 데칸 고원은 굴착하기에 유리해 1000여 개의 석굴사원이 조성됐다.

그 가운데 벽화로 이름 높은 아잔타 석굴군이 가장 대표적이다. 와구르강이 흐르는 U자형 협곡, 75m 높이 절벽에 36개의 석굴을 굴착했다. 대부분 기원전 2세기경 조성되었다가 기원후 460년경 중장 보전되었다.

석굴 형식은 두 가지다. 내부에 불탑(스투파)을 봉안한 예배굴(차이트라)와 승려들의 수도원인 승원굴(비하라)이다. 아잔타의 경우 4개의 예배굴과

30여 개의 승원굴로 구성되었다.

승원굴은 큰 사각형 홀을 뚫고 그 주변에 20여 개의 개별 승방들이 에워싼, 소박한 형식이다. 예배굴은 말굽형의 깊숙한 굴을 파서 내부 중심에 스투파를 봉안하고, 옆으로 이루어진 탑돌이 길을 만들었다. 예배굴의 출입구는 화려한 조각들로 장식하고 그 위의 고창을 통해 자연광이 내부로 들어온다.

예배굴은 기둥과 서까래와 조각물을 남긴 채 바위를 뚫어 내 공간을 만들었다. 지상에 세운 건물을 반대로 음각한 모양이다. 세우고 쌓는 건축이 아니라 파내고 깎아낸 조각품이다. 오로지 정과 망치에 의존해 무량한 손질로 성취한 위대한 장소다. ‘건식 프레스코’ 벽화는 부처의 생애와 본생담(本生譚, 석가의 전생을 묘사한 설화)이 주제인데, 등장인물로 수 없는 미녀들과 외국인이 눈길을 끈다. 사실적인 묘사, 입체적인 화법, 생생한 색채들로 세계 최고의 고대 회화다. 부처와 더불어 아잔타도 인류의 영원한 보배가 되었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전셋값 가뜰이나 뛰는데... ‘2+2년치’ 폭등 예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오는 7월 말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2020년 7월 보증금 5억8000만원에 계약한 김씨는 2년 뒤인 2022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2000만원을 올린 6억원에 갱신계약을 맺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5%(2900만원)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증액한 것이다.

이 아파트에 좀 더 거주하고 싶은 김씨는 집주인에게 재계약 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기존에서 1억3000만원 증액한 7억3000만원에 재계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가 거주하는 면적의 최근 전세 시세는 6억9000만~7억5000만원 정도다. 김씨는 “한꺼번에 보증금 1억원 이상을 올려주고 계속 살지, 다른 전셋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된다”며 “이렇게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09% 상승하며 5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2년 급락(-9.36%)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빌라·오피스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고,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의 감소, 고금리 장기화로 매매 수요가 전세에 머무는 등의 ‘수급 불균형’이

다가오는 임대차법 4년

집주인들 4년간 돈 묶일 것 대비 “1억 안 올려주면 다른 이와 계약” 전세 매물 25% 감소 ‘수급 불균형’



작용한 결과다.

실제 서울의 경우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3만9377건)보다 24.5% 줄어든 2만9732건에 그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삼성래미안(1124가구)처럼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전세 매물 한 건 없는 곳도 많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찾는 손님이 많아 적정 가격대 매물이 나오면 곧바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셋값 상승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권을 보장받고(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계약 시 5% 이내 인상한 가격을 적용(전월세상한제) 받을 수 있다.

김원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주택 매매 /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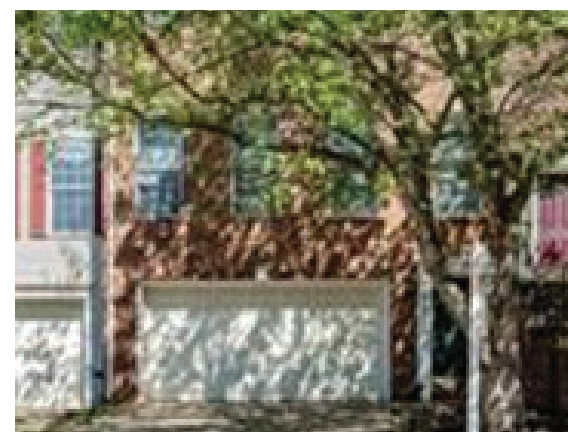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콘도 (타운홈타입 3층짜리)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여전히 전쟁통에 비유되는 현 주택시장에 최근 성사되는 계약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프리미엄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격적인 웃돈거래 뿐만 아니라 바이어를 보호해주는 각종 컨디션시절조차 하나도 없이 이뤄지는 계약이 대부분이다. 물론 지금같은 부동산시장에서 대부분의 셀러가 원하는것은 높은 가격의 매력적인 오피이기도 하겠지만 더불어 확실한 마무리가 보장되는 그것도 남들보다 더 빠른 클로징으로 갈수 있는 믿을수 있는 오피들에 관심이 더 쏠리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된다.

셀러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발빠른 딜리버리를 약속하고 계약을 성사해내려면 말이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바이어들을 보호해주는 여러 컨디션시절은 다 빼고 계약을 하는경우가 허다하다.

시장이 이렇수록 지금 주택시장에 뛰어들어 바이어들이라면 스스로 확실히 미리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기회는 항상 준비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주택시장에서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용자심사까지 이래저래 불평을 토로하는이들도 적잖이 있지만 그럴수록 준비된 바이어가 되어야 지금의 치열한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수 있을것이다.

계약이 이뤄지면 차질없이 클로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마무리 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있는 바이어를 셀러가 선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만 높고 쓴다고 성사되는것은 아니다.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우선 무엇보다 스스로가 주택용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각종 논란과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고 동시에 최상의 조건으로 용자를 받을수 있도록 준비된 바이어가 되어야 할것이다.

지독히 부족한 매물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열한 작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속에서 이기는 방법 뿐만 아니라

준비된 바이어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라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전에 먼저 용자승인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서 보다 더 확실한 사전승인을 받고, 또 용자심사에 문제가 될 출처를 증명할수 없는 현금 디파짓들은 가급적 피하고, 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크레딧을 확인해서 최

상의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게끔 크레딧 점수를 최상으로 유지하는것이 중요한데, 사실 말처럼 쉬이 잘 지켜지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크레딧 점수는 바로 내가 받게될 이자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관리해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다.

주택용자는 대부분의 개인에게 있어서 일평생 연계되는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다. 그 규모면에서나 상환기간이 장기간이다보니 작은 이자율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할수 있겠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더 좋은 조건 더 낮은 이자율로 얻기 위해서는 주택용자 신청에 앞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크레딧 관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택용자신청 최소 2개월전에는 꼭 크레딧을 확인해보길 권유한다.

미리 크레딧을 확인함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류나 수정사항들

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혹시라도 크레딧을 한번 더 조회하면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우려때문에 크레딧 확인을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크레딧을 확인하는데 잘못된 상식이다.

원칙적으로 크레딧 조회는 크레딧 점수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바로 주택용자 관련이다.

1998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후 주택용자 관련 크레딧 조회는 일정기간 (대략 3개월) 안에서 아무리 많은 횟수의 크레딧 조회가 발생을 해도 단 1회로 간주함으로써 이로인한 점수하락을 막고있다. 따라서 안심하고 본인의 크레딧 상황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돌발변수를 미리 막는 지혜를 가지는 준비된 바이어의 모습을 갖추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문의: 703-868-7147

내게 맞는 부동산 투자

정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투자의 방법으로 인식되어 있다.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부동산은 종류가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먼저 어떤 형태의 부동산에 투자할지, 종류를 알아보고 자신에게 안전하고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주거용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게 되는 렌트 수입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얻어지는 수익이 있다.

투자용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작은 콘도나 단독주택을 사서 렌트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2~4유닛이나 5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이 있다.

임대용 주거 부동산은 경기의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LA를 비롯한 대도시의 렌트비와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보다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다른 투자 부동산보다 공실률에 따른 손실의 폭이 작아 안정적이다.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건물의 운영비는 모두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단독주택 등 작은 규모의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손쉬운 투자의 대상이라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다.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샀다가 바로 되팔아도 이익을 볼 수 있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

되어 저성장기일 때에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가능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요즘 같은 때에는 연금 형태의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주거 부동산의 수요가 많다.

소매용 상업공간으로는 큰 규모의 쇼핑몰을 비롯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 상가가 있다. 사거리 코너의 가게가 3~4개 정도 있는 작은 규모에서, 대형 상점이나 프랜차이즈 상점을 '앵커 스토어'로 입주시켜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큰 규모의 쇼핑몰도 있다. 상가의 수요를 좌우하는 몇 가지 요소들은 공간의 위치나 근접성, 가시성, 인구 밀집도, 인구 증가 및 그 지역의 수입 정도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오피스 빌딩이 있는데 건물의 높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보통 6층 이하, 25층 이상 하이라이즈(High-rise) 빌딩 그리고 7층에서 25층 사이의 미드라이즈(Mid-Rise) 빌딩으로 나뉜다. 또한 건물의 관리 상태나 편의시설 등의 유무에 따라 빌딩이 A, B, C등급으로 나뉘어진다.

그다음에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상업용 건물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에 큰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보통 단지 안에 오피스, 공장, 창고(Warehouse)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 규모로는 주거용이나 상가보다는 큰 규모의 투자이다. 그중에서 공장 건물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구조가 정해지고, 전기시설이나 용수 등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미셸 원·BEE부동산 부사장

부동산 시장 현황

현재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0년 고정 이자율은 7%를 넘기고 있어,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바이어나 재용자를 생각하는 집 소유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제 데이터가 연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 초만 해도 3~4년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많아 1~2년 정도 내리거나 시장의 움직임은 보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평상시에는 좋은 데이터도 인플레이션과 연관되면, 오히려 안 좋은 뉴스로 여겨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높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지속해서 고용 시장 및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예상외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동시에 고용 시장도 큰 동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이자율도 내리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우리가 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해도, 커머셜 부동산만큼은 일정 기간 가격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 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아직도 많은 은행이 부실 대출 사태를 우려해, 신규 대출이나 재용자 조 건들을 더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가뜰이나 높아진 이자율에 재용자를 앞둔 많은 커머셜 오피스들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상 팔려고 해도,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해 신규 바이어들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럼 올 5월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보고,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간단히 전망해 보기로 한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전망

을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말의 분위기가 이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지속해서 냉각될 거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지난해에 이어서 매물 부족으로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예상외로 가격은 보합을 보이고, 지역에 따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들도 있었다. 이유는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 집을 가지고 있는 셀러들이 굳이 팔 이유가 없다 보니, 마켓에 매물이 부족했고 모기지 이자율의 하락 등으로 그동안 마켓의 추가 하락을 바라며 기다리던 바이어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오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지난해에 이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에 따라 경쟁이 심화된 것이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바뀐 부동산 흐름으로 인해, 거래가 많지 않고, 가격으로 고전을 보인다.

올 하반기 역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마켓이 흘러갈 확률이 높다.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연준의 움직임, 모기지 이자율의 변동 그리고 고용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금리의 하락 여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모기지 이자율 역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매물의 부족 현상과 맞물려 가격이 추가 상승할 여지도 있다. 지금의 매물 부족 현상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이로 인해 고용 시장이 붕괴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에릭 민·드림부동산 부사장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chocpa@gmail.com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HAPPY Mother's Day **마더스데이 감사 스페셜**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랜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5 YEAR WARRANTY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일시불 구입시 반신욕기 드립니다.

팬텀2 **펠리스2**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기 운동을 동시에!!

안마의자인가 의료가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가기가 되다!

PHANTOM Medical
PEMF 전자기장으로 근육통 완화!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견인!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웨어킹 프로그램
- 손잡이 패드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강화된 안전센서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쿼다이얼
- 3단계 온열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자동 체형 인식
- 폭신한 에어백
- 다리길이 자동 조절

내 집에 **쓱** 내 몸에 **쓱~**

지금껏 닿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특가 세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신속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휴표 홈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홈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적외선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홈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8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한 편리한 작동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겨울을 따뜻하게~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위생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VFX 렌더링만 9억4600만 시간... 새 유인원의 탄생

(시각특수효과)

영화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

1500개 컷 중 1470개에 VFX 작업
털이 물에 젖는 모습 1년 걸려 완성
개봉 수익 1771억원 시리즈 최고

인류의 시대는 가고, 유인원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면. 찰턴 헤스턴 주연의 첫 영화(1968)부터 지난 8일 개봉한 신작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혹성탈출4')까지, 56년간 10편의 영화를 배출한 '혹성탈출' 세계관은 동물원 우리에 갇힌 고릴라 앞에서 시작됐다. 영화 '와이강의 다리'(1957) 원작자인 프랑크 작가 피에르 볼(1912~1994)은 고릴라들의 '인간적' 표정을 보고 문득 상상했다. '닭이었지만 처지가 다른, 인간과 유인원의 관계가 역전된 행성이 있다면? 우주 개발 붐이 일던 당시, 6개월 만에 SF 소설 『혹성탈출』(1963)을 썼다.

원작의 생명력은 여전하다. '혹성탈출4'는 지난주 북미 등지에서 개봉해 전 세계 1억2900만 달러(약 1771억원)의, 시리즈 최고 오프닝 성적 기록을 세웠다. 리부트 3부작(2011~2017) 결말로부터 300년 흐른 미래가 배경이다. 인간이 퍼뜨린 바이러스로 인해 언어 능력



웨스 볼 감독의 촬영 모습(왼쪽 사진). 오랑우탄 캐릭터는 배우가 목발을 짚고 연기해 구현했다.



사진 윌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AP=연합뉴스

을 얻은 유인원들은 지능이 퇴화된 인간을 사냥하며 진화를 거듭한다. 독수리를 길들이며 사는 주인공 침팬지 노아(오웬 티그)는 제국을 꿈꾸는 프록시무스(케빈 두런드) 일당에게 가족을 납치당한 뒤, 역시 쫓기던 인간 여성 메이(프레이아 앨런)와 힘을 합친다.

노아는 유인원이 인류로부터 동물 취급을 당한 과거를 알게 된 뒤 고민한다. "원래 전부 인간 거였어." 위성통신 장비를 되찾아 인류의 시대를 되돌리려는 메이의 말에 노아는 반문한다. "그럼 유인원은? 또다시 침묵 당하던 시절로 돌아가란 소리야?" 원작을 계

승한 '혹성탈출4'가 던지는 질문은 자명하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공존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제의식에선 초심으로 돌아갔지만, 비주얼은 획기적으로 진보했다. '메이즈 러너' 3부작의 웨스 볼 감독이 '아바타: 물의 길' 제작진을 만나 할리우드 VFX(시각특수효과)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유인원 캐릭터는 놀랍다. 거의 모든 장면에 VFX가 들어갔고, 상영시간 145분 중 33분은 장면 전체를 CG(컴퓨터그래픽)로 만들었다. 뉴질랜드의 세계적 VFX 회사 웨타VFX(반

지의 제왕 '아바타: 물의 길' 등)가 참여했다.

2011년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은 배우의 신체 움직임만 CG 캐릭터에 담은 '모션 캡처'에서 더 나아가 얼굴 움직임, 감정 연기까지 포착하는 '퍼포먼스 캡처' 기술을 야의 촬영에도 접목한 기념비적 작품이었다. '혹성탈출4'는 11명의 새로운 유인원 캐릭터를 고해상도로 구현했다. 유인원들이 절벽을 기어올라 독수리 알을 훔치고, 공중에 두발로 매달리는 등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액션을 펼친다. 유인원 역의 배우가 움직임 포착용 복장 '포캡'을 입고

카메라 2대가 달린 헬멧을 쓴 채 연기하면 VFX팀이 이를 CG로 빚어낸 유인원 캐릭터에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웨타에서 캐릭터 표정을 구축하는 한국인 페이스 모델러 김승석 씨는 "오랑우탄은 눈썹 위쪽 뼈가 솟는 듯한 형태여서 표정 묘사가 힘들었다"며 "FACS(페이스 액션 코딩 시스템)를 이용해 감정에 따른 표정 변화를 얼굴 근육 별로 분석하며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어려웠던 건 물과 유인원·맹금류의 털 표현이었다. 오랑우탄이 물에 휩쓸리는 장면은 실제 오랑우탄의 목욕 영상을 토대로, 털이 물살에 움직이고 젖어 드는 모습을 1년 걸려 완성했다. VFX 작업에 렌더링만 총 9억4600만 시간이 걸렸다.

볼 감독은 "1968년 찰턴 헤스턴 주연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TV로 보고 자랐다"며 "이 고전의 오마주를 통해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고 자신했다. 그는 최근 미국 매체 인디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68년 영화의 속편을 만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나원정 기자

그녀가 뛰면 올림픽급 시청률... 미국 '클라크 신드롬'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14일(한국시간) 새 시즌 개막을 앞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가 역대급 흥행을 기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WNBA는 15일 미국 코네티컷주 모하건 선 아레나에서 열리는 인디애나 피버와 코네티컷 선의 맞대결로 2024시즌을 개막한다. 1만 석 규모의 모하건 선 아레나는 일찌감치 매진됐다. 코네티컷 경기가 매진된 건 지난 2003년 이후 31년 만이다.

미국 농구팬들이 WNBA를 주목하는 건 데뷔를 앞둔 슈퍼스타 케이틀린 클라크(22·인디애나) 때문이다. 지난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인디애나 유니폼을 입은 클라크는 미국대학 여자농구 최고 스타 출신이다. 아이오와대에서 가드로 활약한 그는 미국대학 스포츠협회(NCAA) 남녀 1부 리그를 통틀어 역대 최다 득점 기록(3951점)을 세웠다. 미국프로농구(NBA) '3점슛 달인' 스티븐 커리(골든스테이트)를 연

구연맹(FIFA) 월드컵 뿐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NBA 챔피언결정전 한 경기 평균 시청자 수는 1164만 명,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한 경기 평균 시청자 수는 910만 명이다.

대학 무대를 떠난 이후에도 클라크의 인기는 여전하다. 최근 나이키와 8년간 총액 2800만 달러(약 380억원)를 받는 초대형 스폰서십 계약에 합의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농구화도 출시한다. 프로 데뷔전이 될 코네티컷전 코트사이드 시트(관중석 맨 앞 좌석)는 정가 30~50만원의 10배가 넘는 58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클라크 효과'를 체감한 ESPN, 디즈니+ 등은 앞다퉈 WNBA 생중계에 나섰다. 지난 시즌 흥경기 TV 생중계가 한 차례에 그쳤던 인디애나는 올 시즌엔 최소 36경기 이상 생중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시즌에 비해 후원사도 크게 늘었다. 재정이 넉넉해진 WNBA 사무국은 델타항공과 협약을 맺고 올 시즌부터 원정 구단의 모든 경기 일정

에 전세기를 제공한다. WNBA에 새바람을 몰고 왔지만, 정작 클라크의 연봉은 소박한 수준이다. 인디애나와 4년간 33만8056달러(4억 6000만원)에 계약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1500만원 정도인데, 이는 여자프로농구(WKBL) 연봉 랭킹 1위 김단비(우리은행)가 받는 액수(4억5000만원)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NBA의 괴물 신인 빅터 웹반야마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4년간 계약하며 보장 받은 금액(5517만 달러·760억원)의 0.6%에 불과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여성 스포츠는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으며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하지만 여성들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도 여전히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 이제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기회를 줄 때"라고 적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클라크의 연봉과 관련한 보도를 접한 뒤 이 글을 썼다.

피주영 기자



인디애나 피버의 케이틀린 클라크가 지난 10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벌어진 미국 여자 프로농구(WNBA) 시범경기 애크랜트 드림과의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케이틀린 클라크

상케 하는 장거리 3점포와 절묘한 어시스트 능력을 겸비한 그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경기마다 구름 관중이 몰렸다.

지난달 아이오와대와 사우스캐롤라이나대의 NCAA 여자농구 디비전1 결승전 시청자 수는 1870만 명에 달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미국프로풋볼(NFL)을 제외하고 2019년 이후 미국 내 중계 시청자 수가 이보다 많았던 스포츠 이벤트는 올림픽과 국제축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p>Bowie \$639,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p>	<p>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Rockville \$280,000 콘도</p>	<p>Perry Hall 싱글홈, 방3, 화2.5</p>	<p>Ellicott City \$689,000 싱글홈, 럭셔리 스타일 좋은 학교, 0.75 에이커</p>
<p>Cooksville \$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p>	<p>Columbia 싱글홈, 방4, 화2</p>	<p>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Rockville \$520,000 싱글홈, 방4, 화2</p>	<p>Cockeysville \$449,000 싱글홈, 방4, 화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p>Elkridge 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p>	<p>Hanover 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체마루</p>	<p>Germantown 월 \$2,400 타운홈 방3, 화4</p>	<p>Glen Burnie 월 \$1,750 타운홈 방2, 화1</p>	<p>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p>
--	---	---	--	---	--

RENT 집을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Kyle: I don't know what to do. I'm having trouble keeping up with my bills.

카일: 뭘 할지 모르겠어. 돈 내는 걸 다 못해서 좀 곤란하고.

Janice: I'm shocked. You've always been able to put money away.

재니스: 놀랐는데. 넌 항상 돈을 저축하는 편이잖아.

Kyle: I'm just not making enough money.

카일: 그저 돈을 충분히 못벌고 있는 것 뿐이야.

Janice: What are the chances of getting a raise?
재니스: 월급 인상을 받을 확률은 없어?

Kyle: There's a very slim chance that I'll get a raise.
카일: 내가 봉급 인상을 받을 확률은 아주 작아.

Janice: That's what you said last year.

재니스: 작년에도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Kyle: It's been three years since I've had a raise.

The company says it can't afford to give raises.

카일: 내가 봉급인상 받아본지가 3년 됐어. 회사가 봉급 올려줄 형편이 못된대.

Janice: Why don't you get another job?
재니스: 다른 직장을 찾지 그래?

Kyle: Please keep this to yourself. I have an interview next Monday.

카일: 비밀로 해줘. 나 다음 월요일에 인터뷰가 있어.

Janice: Good luck. I hope it's successful.

재니스: 행운을 빌어. 성공적이길 바라.

keep (something) to yourself; 비밀을 지키다

(Kyle and Janice are having lunch ~)

(카일과 재니스가 점심을 먹고 있다~)

▶ keep up with (someone or something): ~를 계속하다

"She kept up with her rent payment until she got sick."

(그 여자는 아플 때까지 계속 임대료를 잘 냈습니다.)

▶ put money away: 돈을 저축하다

"Elizabeth put away enough money for her to retire."

(엘리자베스는 은퇴를 위해 돈을 충분히 저축했습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낱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 열쇠

(1)허리가 끊어질 듯하고 배가 아플 정도로 몹시 웃음 (4)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닐. □□완□ (7)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 (8)종교적인 유적이 있는 곳. ~ 순례 (9)사람의 죽음을 알림 (11)후년의 바로 다음 해. 내후년 (12)학교의 이념이나 목표를 간명하게 나타낸 표어. 우리 학교의 ~은 자유와 정의, 진리이다 (13)굵고 튼튼하게 짠 줄 (15)가축을 놓아기르는 일정한 곳 (16)그릇, 밥상 따위를 닦거나 씻는 데 쓰는 형질 (17)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세 쌍의 발,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개미 매뚜기 벌과리 따위 (18)알집도록 능청맞고 천연스러운 태도. 과장은 마치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을 떨며 우리들을 추궁했다 (20)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23)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음 (24)알의 노란 부분 (26)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노래를 부름 (27)속내를 꿰뚫어 알아차림 (28)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30)석가의 눈(안)과 공자의 마음. 매우 자비롭고 여진 마음 (31)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세로 열쇠

(1)흔들어도 꺾이지 아니함 (2)원수를 갚음 (3)처음으로 인사를 때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 줌 (4)법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나이 (5)별이 잘 들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 (6)나라의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

는 훈장 (10)부모를 여의고 홀로된 아이 (12)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란 나무. 큰키나무 (14)대문의 좌우로 죽 벌여 있는 종의 방. 도망의 속어 (15)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치는 망 (18)여러 사람이 몹시 떠들썩하고 소란스럽게 법석을 떠는 것. □□법 □ (19)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것. ~을 쌓다 (21)제사 때에 피우는 향을 담은 작은 함 (22)수만 마리가 날아오르며 군무를 펼치는 겨울철의 진객. 오리과의 국제적인 보호조. 경북 달성군의 지명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24)지나칠 정도로 남의 일을 걱정하는 마음 (25)잘 자라 우리 아가 (27)물고기의 간장에서 뽑아낸 지방유 (29)물고기의 잔뼈

스도쿠

	5		7	3		4		
7	1		9					6
4						8		
	2			6		7		5
				3				
1		7		9			3	
		1						2
9				2		7	8	
	6		8	4			9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6	1	2	4	8	5	9	7
8	2	5	7	1	9	4	£	6
2	9	4	6	5	£	1	2	8
4	£	9	5	6	7	2	8	1
1	7	6	8	£	2	9	4	5
5	8	2	1	9	4	6	7	£
2	1	8	9	7	5	£	6	4
9	5	£	4	8	6	7	1	2
6	4	7	£	1	8	5	9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유효 기한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부모**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력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텍,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급 포장이사 서비스
자재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MD 업소 안내 전기 공사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용자

마이클 장

맞춤 용자의 길인
질문과 함께 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 dc.thekoreadaily@gmail.com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 L.A
- 애틀랜타
- 기타 지역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유명한 배니스 비치가
선글라스 안경+잡화
전망좋은 장소에서
삶을 찾아보세요
부부적합가 15만(Inv포함)
(310)266-8086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3만5천
년매 8만 (310)936-8925

수영장 청소권 매매
필로스바디스/토렌스
(818)926-2095

Senior Manager:
Manage sales strategies and
operations: Bachelo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Mechanical
System Design Engineering
or related req'd, 40hrs/wk.
Apply to Kumho Tire U.S.A., Inc.
133 Peachtree St. NE, Ste. 2800,
Atlanta, GA 30303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워드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율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낙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갈리치마 살매
천공살매

Up to 40%
헛신분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살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BAYVIEW ADVISORS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CHRIS CHUNG
MANAGING DIRECTOR
516-321-0353 chris@bayview.llc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회사 설립
도와 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경력
QR code 참조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CONTACT US : EMAIL / TXT ONLY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Hansol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Dokdo Supply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Twin 9.0"
Tanha Twin 9.0"
Tenso 9.5"

(2,000개 / Box)

ONE STOP 서비스로 POS 용지와 냇킨과 커스텀 젓가락 디자인 취급합니다.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213.985.4200
DOKDOSUPPLY.COM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계단없는 1층, 단지내 시설 좋음, 걸어서 쇼핑센터, 교통 좋음 **\$329,900**



독점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남향, 밝은 집, End unit, 1,475SF, H-Mart 가까운 동네. **\$380,0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2,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업데이트 **\$317,000**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독점 새로 리모델링한 타운하우스

Woodbridge \$2,400

엔드 유닛 타운 홈, 차고1



Woodbridge \$2,750

2층 타운 홈, 엔드 유닛, 2,362 SF, 차고1, 고급 나무 마루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